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7033.92	↑ 코스닥	836.92
	(-17.72)		(+6.55)
↑ 금리	3.930	↑ 환율	1340.55
	(+0.020)		(+4.45)

GNI 4만 달러 장밋빛? 실질임금 후퇴 ‘괴리’

명목성장률 20% 증가 등 긍정전망 반도체 외 타산업 임금상승 미지수 현은 “효과적인 정책조합 필요”

정부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의 4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긍정 전망의 이유로 명목 성장률의 20%대 증가 및 가계의 소득개선 등을 들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파급력이 가계부문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 증가에 따른 물가 급등 우려도 동시에 제시했다.

관건은 가계 소득의 고른 성장 여부다. 호황기의 반도체 외 타 산업부문 종사자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지는 미지수다.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 지표에서 드러난다. 2분기 평균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 원이었다. 연 4044만 원에 그친다. ‘4만 달러’는 10월 미화 대비 원화 환율 기준 5340만 원이다. ‘장밋빛’ 관측과 ‘현장’ 간 이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분기 경장 국내총생산(GDP)

이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9일)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도 전년동기 대비 18만4000명 증가해 중동전장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 “8월말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늘었다”고도 했다.

향후 정책방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경제지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더욱 경제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명목성장률이 20%를 상회한 점을 부각했다. 명목성장률의 급등은, 과거와는 달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이끈 것으로 평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은 기업의 수익 증가로 이어졌다.

〈2면에 계속〉/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물가상승 압력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이용객이 주유하고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달러 선을 넘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19년 고집 접은 애플, 삼성과 폴더블 격돌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갤럭시 Z 폴드8처럼 책 펼친 형태 폴드8이 53g 가볍고, 0.7mm 얇아 329만원, 삼성보다 100만원 비싸

애플이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를 비롯한 신제품을 공개한 가운데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를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7년간 시장을 선점해온 폴더블폰에 애플까지 뛰어들면서 양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듀오와 아이폰18 프로·프로 맥스, 애플워치 시리즈12·울트라4, 에어팟5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 선보인 폴더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Z 폴드8과 마찬가지로 책처럼 좌우로 펼치는 북타입 형태로, 두 회사가 같은 폼팩터를 놓고 직접 경쟁하게 됐다.

두 제품의 내부 화면은 모두 7.6인치다. 외부 화면도 아이폰 듀오 5.4인치, 폴드8 5.5인치로 비슷하다. 다만 휴대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폴드8은 무게 201g, 펼쳤을 때 두께 4.5mm로 아이폰 듀오의 254g, 5.2mm보다 53g 가볍고 0.7mm 얇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제품을 거듭하며 폴더블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무게와 두께를 줄여왔다. 올해 폴드8에서도 경량·슬림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첫 제품을 내놓은 애플과의 하드웨어 경쟁에서 선점 효과를 이어갈지가 관심사다.



존 터너스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26년 9월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애플 캠퍼스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 듀오를 선보이고 있다. /AP·뉴시스

애플은 사용성과 기존 아이폰 생태계로 맞선다. 아이폰 듀오는 두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하거나 같은 앱의 창을 두 개 띄우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연내에는 USB-C 방식 애플펜슬도 사용할 수 있다. 1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힌지와 나노텍처 마감 등을 적용해 폴더블폰의 내구성을 높이고 화면 주름의 가시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가격에서도 양사는 차이를 보였다. 아이폰 듀오 256GB 모델의 국내 출고가는 329만원이다. 같은 용량의 갤럭시 Z 폴드8은 227만8100원으로 아이폰 듀오가 101만1900원 높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256GB 모델(257만7300원)과 비교해도 약 71만원 비싸다.

성과와 발열 관리도 경쟁 요소다. 아이폰 듀오는 2나노 공정 기반 A20 프로와 전용 베이퍼 챔버를 적용해 고부하 작업에서 성능 저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8에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

리트5세대가 탑재됐다. 배터리는 애플이 내부 화면 기준 최대 31시간, 외부 화면 기준 최대 44시간의 동영상 재생 시간을 제시했고, 삼성전자는 폴드8이 최대 26시간 동영상 재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높은 가격에도 기존 아이폰 이용자를 폴더블 시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지가 향후 경쟁의 관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존 폴더블 업체에 더해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을 보유한 애플까지 경쟁 상대로 맞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 통해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누적 출하량이 1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애플 25%, 화웨이 22%로 전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이폰 듀오는 휴대폰과 아이패드의 역할을 하나의 기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크다”며 “실제 출시 이후에는 디자인의 완성도, 무게와 두께, 배터리 수명 등이 삼성전자 제품과 비교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얇고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게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아이폰 사용자들의 충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고, 가격에 따라 일부 소비자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與 법사위, 선관위특검 발족 하루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용혜인 청문회 파행 시도…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만들려 해”

▲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졸속 레버리지ETF 국민 피해 54조”
▲“파주 냉동창고 살인, 위조 상품권 조직과 카페 사장의 연관성 살펴야”

▲교사노조 “현장 외면한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즉각 중단해야”
▲신당역 사건 4주기…“여전히 젠더폭력 반복, 2인1조 미흡”

최태원 회장, 울산 제조현장 방문… ‘AI 풀스택’ 직접 챙긴다

〈SK그룹〉

SK이노 등 주요 계열사 CEO 동행
‘AI 풀스택 프로바이더’ 실행력 확인
“SK그룹 AX 의지 점검하는 자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울산 제조현장을 찾아 인공지능 전환(AI)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부터 정유·화학 생산현장의 AX까지 직접 살피며 그룹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10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SK이노베이션 울산CLX를 잇달아 방문했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정재현 SK텔레콤 사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김원기 SK엔트브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동행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최 회장이 지난 6월 ‘뉴 이천포럼’에서 AX 중심의 경영 대전환을 강조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서비스, 제조현장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해 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의미가 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회장이 먼저 찾은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그룹이 전국에 추진하는 15GW(기가와트) 규모 AI 인프라 사업의 첫 사업지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SK하이닉스, SK AX 등 주요 계열사의 역량이 결집되며,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SK는 향후 영남권에 총 2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방문한 울산CLX는 AI를 실제 제조공정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AX 현장이다. 정유·화학 공정의 최적화와 안전관리,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AI가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엔지니어의 경험과 결합하는 ‘듀얼 브레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50만평 규모의 생산설비를 AI가 상시 감지·분석하고 최종 판단은 현장 인력이 내리는 방식이다.

SK가 AX를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배경에는 AI 산업의 경쟁축이 기술 자체에서 인프라와 실제 산업 적용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경쟁력을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제조 AX로 연결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회장의 이번 행보는 이 같은 ‘AI 풀스택 프로바이더’ 전략의 실행력을 직접 확인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 투자 부담과 에너지 수요 증가,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면서 AX를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그룹 전반의 경영체질 변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의 AX 가속화 의지가 AI 풀스택 전 구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AI 인프라, 제조현장의 AX까지 모든 영역을 빈틈없이 살피며 ‘AI 풀스택 프로바이더’로 서 입지를 주도해 나가겠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GNI 4만달러 장밋빛’서 계속

기업 실적·설비투자 ‘쑥’ 가계 소득·민간소비 ‘뚝’

올해 IT(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조선·기계 등 여타 제조업의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뛰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또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 같은 기업 실적 개선이 정부 및 가계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의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본 것. 정부 부문도 내년 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성장률 급등이 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 세수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 관측이다.

다만 수요 측 압력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늘어난 소득이 저축이나 자산 취득보다 민간소비로 이어질수록 물가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 여건 개선이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명목성장률 급등이 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수출 최대 실적 등이 가계로 흐르지 않는 점이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부분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들이는 데 수십조 원을 쓴다. 하지만 대규모의 직접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올해 2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해 2.1% 늘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 줄었다. 실질임금은 올해 4월 -1.0%, 5월 -1.4%, 6월 -0.1% 등 석 달 연속으로 후퇴했다.

근로자·가계 소득이 도리어 거꾸로 가는 흐름 속에 소비 역시 감소로 돌아섰다. 국가데이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0.8% 줄어 들었다. 특히 승용차와 가전 등 고가 내구재 구매(-4.1%)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외식 및 숙박업 생산(-1.0%) 지표도 뒷걸음질쳤다.

물가는 치솟고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중동시대의 불확실성 탓에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거세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6%에서 3.4%로 크게 상승했다.

또 7월 20대 실업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p) 올랐고 고용률은 60% 미만을 보였다. 반도체 호황에도,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수도권 내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7월 수도권 월세 가격 상승률은 0.64%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72%(전월 0.67%)로 더 높다. 수년간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 대비 30% 넘게 급감한 여파가 주거비 상승을 불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조선, 특수선·잠수함 등 글로벌 수주 팔 걷어

한화오션 태국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 HD현대중공업 사우디 등 중남미 시장 진입

한화오션이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다음 수주처로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수상함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후속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2030년 특수선사업 매출을 4조원, HD현대중공업은 7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의 목표를 단순 합산하면 11조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수주 확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최근 태국 해군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1척과 통합군수지원체

계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안 금액은 167억3000만바트(약 6833억원)이다.

태국은 현재 4척인 호위함 전력을 2037년까지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 이후 후속함 3척이 추가 발주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4조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음 수주전은 필리핀 잠수함 사업으로 이어진다. 필리핀은 약 2조원 규모의 잠수함 2척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KSS-III 계열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동남아시아 연안 작전에 맞춘 수출형 잠수함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이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함정 성능뿐 아니라 기지 건설과 승조원 양성, 장기 정비지원 능력도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해군

현대화 사업도 주요 수주 후보로 꼽힌다. 사우디는 6000톤급 호위함 5척과 잠수함 4~6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로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해군 수요에 맞춘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월 리야드에서 열린 ‘WDS 2026’에서 KSS-III 배치 II 잠수함과 맞춤형 잠수함 기지 모델을 선보였다. 국내 협력업체 11곳과 중동 공동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사우디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프랑스 나발그룹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디가 국방비의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어 현지 건조와 기술이전, 자국 업체의 사업 참여 조건이 수주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에서는 현지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15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향후 건조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칠레에 2000톤급 잠수함 ‘오션 2000’과 4500톤급 호위함 ‘오션 4500’을 제안했다. 칠레 해군의 운용환경과 노후 함정 교체 수요에 맞춰 잠수함과 수상함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남미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오랜 기간 수출 실적과 현지 네트워크를 쌓아온 주력 시장으로 한국산 무기체계의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이 형성돼 있다”며 “기존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중동과 유럽에서 신규 계약을 확보한다면 양사가 제시한 특수선 매출 계획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KAI, 이달 말 KF-21 공군 인도… 국산 전투기 수출 ‘속도’

2032년까지 120대 전력화 추진
글로벌 무대에서 KF-21 가능성 열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이 이달 말 양산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공군 전력에 합류한다. 오는 2032년까지 120대 전력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KAI는 현재 폴란드 방산전시회에서 차세대 전투체계로의 확장 구상도 제시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양산 1호기는 이달 말 공군에 인도된다. 지난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한 지 약 10년 9개월 만이다.

KF-21 사업은 2001년 국산 첨단 전투



KF-21.

/KAI

기 개발 선언 이후 단계별 절차를 밟아왔다.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올해 3월 양산 1호기 공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쳤다. 시제기 6대를 투입해 42개월간 약 1600회의 비행시험도 수행했다.

초기 인도 물량은 공대공 전투에 중점

을 둔 ‘블록(Block) I’ 사양이다. 동체 하부에는 MBDA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이 탑재된다. 날개에는 독일 뢰(Diehl)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가 장착된다. 20mm M61A2 기관포도 적용된다.

미티어는 공군 최초 운용 시점에 맞춰 인도될 예정이어서 이달 도입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4년 10월 MBDA와 미티어 100발 도입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 실사격 시험을 통해 무장 연동과 유도·사격 성능 검증도 마쳤다.

KAI는 방위사업청과 1·2차 계약을 맺고 초도 양산 40대를 확보했다. 계약 규모

는 약 4조3500억원이다. 오는 2028년까지 블록 I 40대를 순차 배치한다. 이후 공대공 임무를 추가한 블록 II 80대를 생산한다. 오는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KAI는 첫 공군 인도를 앞두고 KF-21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리는 ‘MSPO 2026’에 참가해 KF-21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시회에서는 KF-21과 무인전투기(UCAV), 다목적무인기(AAP), 저궤도 통신위성을 연계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3 ACS)’를 공개했다. 4.5세대급 KF-21에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향후 6세대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유혜은 기자 chahchah@



기업 CEO들, 사업계획 1순위 ‘AI’… 경제·정책보다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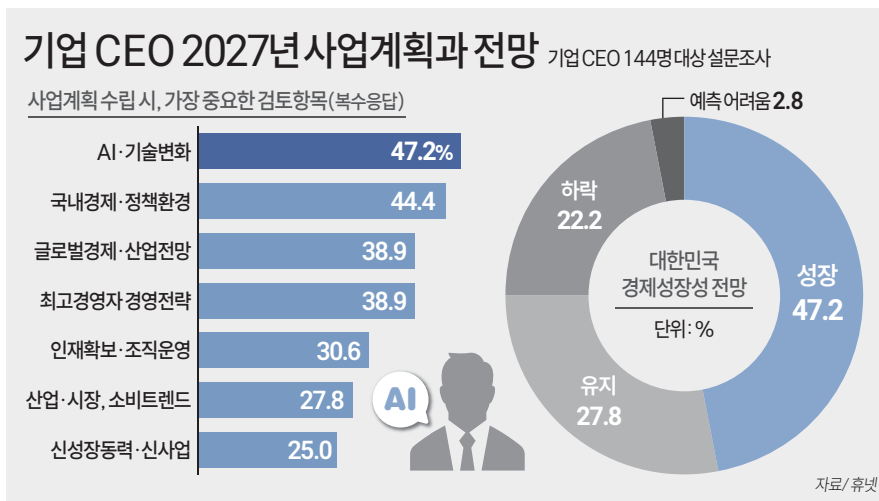
휴넷, CEO 144명 사업계획 설문
47.2% AI·기술 변화 최우선 검토
61.1% 경영 최대 영향 변수 AI 지목
47.2% 내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2027년 사업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과 빠르게 발전하는 AI 관련 기술 변화였다.

이런 가운데 CEO 2명 중 1명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CEO 144명을 대상으로 ‘2027년 사업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내년 사업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항목(복수 응답)은 ‘AI 및 기술 변화’ (47.2%)가 ‘국



내 경제 및 정책 환경’ (44.4%)보다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글로벌 경제 및 산업 전망 (38.9%) ▲최고경영자의 경영 전략 (38.9%) ▲인재 확보 및 조직 운영 (30.6%) ▲산업·시장 및 소비 트렌드 (27.8%) 등의 순이었다.

CEO들은 내년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복수 응답)도 AI를 지목했다.

관련 질문에는 ‘AI 기술 발전 및 산업·비즈니스 구조 변화’가 61.1%로 가장 답변이 많았다.

이어선 ▲글로벌 경기 및 금리

(36.1%) ▲국내 정치 및 규제 환경 변화 (33.3%) ▲소비 트렌드 및 내수시장 변화 (27.8%)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세 정책(22.2%) 등이 뒤를 이었다.

AI가 국내의 정치, 경제 등 외부 환경 변화보다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기업은 ‘AX(AI Transformation)’를 통해 조직 전반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X 준비 정도’에 대해 ‘일부 사업 부문에서 추진 중’이 38.9%, ‘이미 전사적으로 추진’은 19.4%로 전체 응답자의 58.3%가 일부 또는 전사적으로 AX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AX에 대해 ▲검토중(22.2%) ▲아직 계획 없음(16.7%) ▲필요성 못 느낌(2.8%)도 적지 않았다.

실제 사업계획에 AI를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했다. 2027년 사업계획에 ‘AI

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주요 사업 및 경영 전략에 반영’(41.7%), ‘사업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반영’(22.2%)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는 63.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CEO들의 내년 경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202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성’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7.2%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는 27.8%였다. 반면 ‘하락’ (22.2%) 또는 ‘예측하기 어렵다’ (2.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대한 내년 전망에선 ▲성장(47.2%) ▲유지(16.7%) ▲하락(27.8%) ▲예측하기 어렵다(8.3%)로 각각 나타나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日 국채 매력 커지자 美 장기채 수요 흔들… 韓 금리도 변수

한해지 감안 日 국채 수익률 우위
신규·만기자금 자국채 이동 가능성
美 장기채 수요 약화 땀 금리 상승
국내 장기물 수급 부담까지 겹쳐

일본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한해지(위험 회피)를 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자국 채권의 상대적 매력력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해외 채권 거래는 기관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새 투자금과 만기 상환금의 배분이 미국채 수요를 거쳐 한국 장기금리에 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랙록투자연구소(BII)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일본 투자자가 10년물 자국 국채로 약 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엔화 한해지 비용을 반영한 같은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약 2%라고 비교했다. 해외에서 수익을 찾아온 일본 투자자에게 자국 채권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해지 비용에 달라지는 채권 선택
한해지는 달러 자산을 엔화로 바꿀 때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거라다. 달러로 계산한 미국채 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 비용을 반영하면 엔화 기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블랙록의 미국채 비교치는 3개월 선물환 계약을 반복 갱신할 때의 추정치로, 해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10년간 확정된 수익률을 뜻하지 않는다.

자금 배분의 변화는 신규 투자와 만기

자금 재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해외채권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새 투자금과 상환받은 자금을 일본 국채에 더 배분하면 해외채권의 추가 매수 수요는 약해질 수 있다. 블랙록도 일본 내 수익률 상승이 해외채권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단기금리 차가 좁

히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달러 자산의 엔화 해지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한해지 후 미국채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어,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만으로 해외 채권 투자의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 한국 장기금리에도 변수

일본 재무성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해 지난 8일 발표한 8월 통계를 보면 은행·신탁은행의 자체 운용 부문인 은행계정은 해외 중장기채 처분액이 취득액보다 1조 6793억엔 많았다. 반면 고객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은행 신탁계정은 2조 3329억엔 취득 초과였다. 다른 부문까지 포함한 전체는 1430억엔 처분 초과를 기록했다.

재무성이 10일 발표한 주요 금융기관의 주간 증권투자 통계에서는 지난 8월 30일~9월 5일 해외 중장기채 취득액이 처분액보다 1119억엔 많았다. 직전 두 주의 처분 초과에서 3주 만에 취득 초과로 전환했다.

앞으로 일본 투자자의 미국채 추가 매수가 줄어든다면 다른 투자자가 이를 열

마나 매우는지가 중요해진다. 기존 수익률로 충분한 매수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채권시장에는 국내 장기물 수급 부담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7일 보고서에서 최근 국고채 장기금리가 초장기물 공급 확대와 보험사 매수 기반 약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는 은행채와 회사채의 기준이어서 대외 금리 상승이 국내 채권금리로 번지면 민간의 자금 조달비용에도 부담이 된다. 파급 정도는 국내 채권 공급과 수요, 통화정책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채 수요 구조의 변화로 장기채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국내 요인으로 이미 높아진 국고채 금리에 대외 요인까지 가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김민석 “메가특구법 등 최대한 협의”… 한노총 “정년 65세 연장”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대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찾아 노동계 주요 입법과제·현안 의견 청취
주52시간 예외·파견 확대 등에 반발
공공기관 통폐합 실질 노동교섭 요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메가특구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노동계와 최대한 협력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을 찾아 ‘메가특구특별법도, 공공기관 이전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하겠지만 법안을 만들고 성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을 찾아 모두 발언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파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되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파견근로자 업무 확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특구내 기업에 파견 근로자

를 보낼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 하용 업종은 32개로 제한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메가특구 내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로 26주 평균 주52시간을 맞출 수 있어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대표의 방문에 맞춰 ▲법정 정년 65세 연장 ▲메가특구법 노동권 배제 시도 철회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편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 폐기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실질적 노동교섭 보장 등을 담은 한국노총 입법과

제를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메가특구(특별법)이든, 공공기관 통합과 지방이전 이든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여당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후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정년연장안을 마련하고 성안을 위해 노사 중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정년 연장특위는 지난 6월 중재안 초안에서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년퇴직 뒤 재고용하는 제도도 도입해 재고용 의무연령을 2028년 61세, 2029년 62세, 2031년 63세, 2033년 64세, 2035년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본업·인프라·그룹 총력전...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도약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이끌어 온 SK텔레콤이 통신사에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지향점은 'AI 네이티브 컴퍼니'다. 앞서 2022년 제시한 'AI 컴퍼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물론 회사 운영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전환하고,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을 회사의 글로벌 사업이 되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외부 기술과 그룹 역량을 흡수하는 사업 확장력도 높게 평가된다. SK그룹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독보적으로 수행하며 AI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힘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SK텔레콤



◆ 통신 본업부터 업무 방식까지 'AI 네이티브' 전환 가속

SK텔레콤의 AI 전환은 통신 시스템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올해 3월 통신 서비스 근간인 통합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자율 운영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객 서비스와 직결되는 과제다. 통합시스템 내 영업전산, 회선관리, 과금시스템 등을 AI 중심으로 구축하면 요금제와 멤버십 등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전산망·조직 체질, AI 중심 대개편 AI 에이전트 인력 20%까지 육성

2035년까지 전국 AIDC 조성 목표 AIDC 전담 법인 'SK하이퍼' 설립 SK호라이즌 신설로 3조 자금 수혈

또한 네트워크 운영 주체를 사람에서 AI로 전환해 무선 품질 관리, 트래픽 제어 등 통신 품질과 관련된 환경을 자율화한다.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운영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바뀐다. 올해부터 전 구성원이 AI 중심으로 일하도록 3단계 육성 체계를 운영한다. 각 조직은 AX 디자인 캠프→AX 프론티어→AX 부트캠프 순으로 교육 과정을 거친다. 올해 말까지 전체 인력의 20%가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을 갖추는게 목표다.

◆ AI 기업 도약 위해 사내 독립조직 중심으로 잇단 재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AI의 사업화'다. 통신 사업과 AI 사업 전문 조직을 동일 선상에 놓고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 게 시작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정재현 대표 체제에서 유경상·정석근 CIC장이 AI 사내독립기업(CIC)을 공동지휘하고, 한명진 사장이 MNO CIC를 맡아 통신 사업을 총괄한다.

사업 모델은 AI 데이터 센터다. SK그룹이 직접 나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총 비용 1000억원을 투입, 2035년까지 전국에 AIDC 클러스터를 15GW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도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 달에만 두 번에 걸쳐 조직을 재구성했다. SK텔레콤은 7500억원을 출자해 AIDC 전담 법인 SK하이퍼를 설립하고 회사 내 AI 사내독립기업(CIC) 공동 대표를 맡은 정석근 CIC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SK그룹의 AI 인프라 계획이 구체화 되자, 그룹 내 흩어진 AI 인프라 역량을 결합하려는 행보다.

이후 기존 데이터 센터(IDC) 운영 주체인 SK브로드밴드를 존속회사로, SK호라이즌을 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하면서 경영 효율화에 나섰다. SK호라이즌 대표는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이 겸임하며 오는 2027년 1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울산 AI DC 신사업과 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해저케이블 사업을 총괄한다.

이로써 대규모 AI DC 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실제로 SK호

라이즌은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며 SK호라이즌은 3조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풀스택 AI 구현 위해 스타트업 투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 합병 추진 독자 AI 모델 사업 정부 평가 통과 엔비디아와 그룹 차원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투자하고 SK그룹 역량 총결집... AI 기업 도약

SK텔레콤의 AI 생태계 확장은 이같은 행보를 뒷받침한다. 그 동안 내부 역량에 더해 SK그룹사와 스타트업, 외부 개발자 생태계를 연결해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 '데보션'은 SK하이닉스와 SK AX, SK브로드밴드 등 그룹 내 ICT 계열사 개발자가 참여 중이다.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했으며 외부 개발자와 연계한 스타디 프로그램 '데보션 오픈랩'을 신설해 기술 교류에서 개발 협력으로 확장했다.

특히 풀스택 AI 구현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거대 언어모델(LLM) 등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은 2023년부터 리벨리온에 투자를 지속하다가 이듬해 SK텔레콤 내부 연구개발 조직에서 분사한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이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정재현 SKT CEO

투자자로 나서며 올리는 CPU와 혼합한 AI 서버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미국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는 지난 8월 약 1400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매입했다. AI 데이터센터에 차세대 GPU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체 AI 모델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I 주권 확보를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 평가도 통과했다. 특히 독파모 사업에서 정부 평가를 통해 SK텔레콤의 '에이엑스 케이투'가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를 제조·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SK그룹의 제조 역량도 힘을 보탠다. SK하이닉스의 HBM과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반도체부터 AI 인프라까지 그룹 차원의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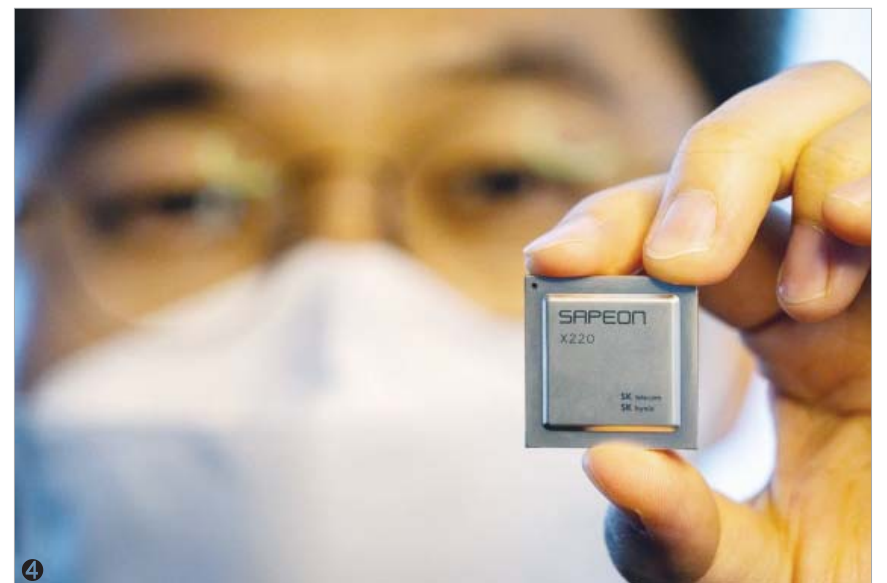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사의 경쟁력을 AI 인프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게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결 과제다. 이에 올해 6월에는 엔비디아와 GW급 AI 팩토리·클라우드 구축을 공동 추진하며 아시아 AI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SK텔레콤의 변화는 계속 될 전망이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올해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부터 CEO의 C를 체인지로 바꾼다"며 "앞으로 저는 우리 회사의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① 지난 9일 서울 중구 SKT T타워 수팩스홀에서 SKT '모두의 AI 컨소시엄' 출범식이 열렸다. ②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③ 울산 AI 데이터센터 조감도. ④ SK텔레콤의 사피온. /SK텔레콤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저희의 희망은
그리고 희망은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근의 표정은
소비자 디지털
소비자 디지털
저희의 희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 있다

호르무즈·대만해협 ‘동시 경고음’… 여야 “선제 대응해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신중론’
범정부 차원 대비 태세 점검 요청

여야 의원들이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만해협과 호르무즈해협 등 유사시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만해협에서 갈등이 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민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우리 정부와 군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대비해 일본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파병 요청에 우리 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 액화 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요충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의 후폭풍으로 두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준우 외교부 제1차관에게 “(우리 군의)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 때와 호르무즈 파병이 무엇이 같고 다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공급망과 많이 관련돼 있고 선박의 안전, 영내 지역에 있는 분의 안전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전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아닌가”라며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확산이 몰고 올 에너지 가격 급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중

동이 어려워지면, (에너지의) 60%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는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 비상 플랜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관련 대체수급선 확보, 국가 상호 간 비축 및 교환 등을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외교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에너지 위기 상황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일본과는) 에너지 비축과 교환, 공급 및 확보 문제를 두 가지 트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관련해서 협의 어레인지먼트(협약)를 갖고 있고, 일본의 경산성과 우리의 산자부 간 에너지 비축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교환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 전략이 될 것”이라며 “각별히 지혜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국내법 절차와 사회적 동의를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예로 들며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전쟁이 발발해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에 훨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3% 이상 줄어들고 주한미군이 이동

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안보 상 큰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과거 이 대통령은 대만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왜 개입하냐, 전쟁이 발발해도 남의 나라 일’이라며 중국에도 세세(Xiexie·감사합니다), 대만에도 세세하면 된다고 했다”며 “이게 세세하면 해결될 일인가. 저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외교적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잘못된 세세 인식을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대만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며 “사태가 발생하고 대응하면 늦는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외교적 상황이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관계를 예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대만과 중국 간의 부분들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박태홍·박경수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프랑스와 K-콘텐츠·원전·AI 협력 ‘성과’ 여야, 용혜인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충돌

국방·원전 등 16건 협력 문서 채택
‘뤼미에르 파트너십’ 등 외연 넓혀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순방을 통해 문화·영상 산업 글로벌 연대를 주도했으며, 한국과 프랑스 사이 안보·원자력·첨단산업 등 협력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7분쯤 공군 1호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 도착해 이튿날인 7일 생폴 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했다. 뤼미에르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을 맡아 영화·영상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밋의 참석 성과로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이 있다. 한국과 프랑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씩 총 10억유로(1억6000억원)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자국 콘텐츠 기업 지원과 양국 공동 제작 활성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대 등이 출범 취지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국내의 영상산업 관계자들과 잇달아 만나 투자와 제작, 유통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뤼미에르 서밋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양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상은 문화 분야뿐 아니라 국방·방산과 원자력,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분야를 포함해 총 16건의 MOU(양해각서) 등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해 정보 교류의 안정성을 높였고,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장기 농축염류 공급 협력 의향서를 채택해 원전 공급망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원전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양국이 공급망과 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적 협력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스타트업인 미스트랄AI 간 투자협약도 체결하는 등 반도체·양자기술·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

로 했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도 양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에너지 수입과 수출 물류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다만 양 정상은 ‘파병’이 아니라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이 의제는 아니었다”며 “우리의 검토 단계에 맞춰 해협의 안전 및 통항 문제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기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독단 취소” vs 野 “27명 거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 위한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무산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인 이수진·이연희·전은수·김남균·이주희·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슬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됐던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이 예정돼 있던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돼, 이후 청문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협의했다”며 “어제부터 증·참고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의 협의를 이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맛대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고 증·참고인 협의가 안되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관련해 국민의힘은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해왔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성평등가족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로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의혹 해소와 검증에 필요

한 증인 채택을 위해 국민의힘은 28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1명을 제외하고 27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과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지만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청문회 개최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외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제외한 27명의 채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후보자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각종 의혹을 규명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위성정당을 통한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과 장관직 겸직·국고보조금 문제, 정치자금 약 3억원의 특별당비 납부, 당내 성차별 묵인 및 세월호 침묵시위 차명기획 논란, 배우자 박기홍 최고위원의 ‘셀프 인사’ 및 ‘가족 소득당’ 논란, 김포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및 시·도당 사무소 허위등록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용혜인 후보자는 이날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사당화·가족정당 의혹 등을 스스로 해명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불안과기대는
도저히이아티며이다
은니표짓는이다
소비다디치트
노아구구비트
불안은기대도
비극수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삼성화재, 캐노피우스 품고 보험영업 수익성 개선 ‘날개’

英 캐노피우스 지분 40% 보유
상반기 지분법손익 1685억
지분·자회사 매각 효과 1073억
보험료율 ↓·보험료 ↑ 외형성장

영국 특수보험사 캐노피우스가 삼성화재 수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율 하락과 사업비 부담 확대 속에서도 보험영업 수익성을 개선에 기여한 것. 지분 확대와 자회사 매각 효과가 삼성화재에 반영되는 이익을 키운 가운데, 향후 이익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과제는 캐노피우스의 보험영업 수익성 유지라는 분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3일 해명공시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된 영국 대형손보사 인수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해외 투자처인 캐노피우스는 이미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삼성화재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노피우스 지분법손익은 1685억원이다. 지분 확대 효과 684억원과 캐노피우스의 자회사 매각 효과 389억원이 반영됐다.

◆ 손해율 개선이 사업비율 상승 상쇄
캐노피우스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합산 비율은 87.3%로 전년 동기 89.7%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손해율과 사업비

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낮을수록 보험영업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다. 비교 수치는 모두 보험금의 현재까지 할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기준이다.

사업비율은 36.2%에서 38.6%로 높아졌지만 손해율은 53.5%에서 48.7%로 낮아졌다. 손해율 개선 폭이 사업비율 상승 폭을 웃돌며 보험영업 수익성을 끌어 올렸다.

다만 손해율 개선에는 사고 환경의 도움도 있었다. 캐노피우스는 상반기 대형 재해가 적었던 점과 일상적인 보험사고의 손해율이 양호했던 점을 개선 배경으로 들었다. 재해 발생과 손실 규모에 따라 손해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반기 개선 폭을 그대로 향후 실적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요율 경쟁에 계약 선별

보험료를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 캐노피우스 포트폴리오 기준 상반기 보험료율은 7% 하락해 전년 동기 하락 폭인 4%보다 컸다. 보험계약 인수에 따른 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10% 늘어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보험료율이 내려가면 같은 위험을 보장하면서 받는 대가가 줄어든다. 계약을 늘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보험금 지급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캐노피우스는 상반기 실적자료에서 버뮤다의 여러 주요 계약을 가격 때문에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 계약은 걸러내는 대응이다. 또한 전반적인 요율의 적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후이익 증가율을 볼 때도 매각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캐노피우스의 상반기 세후이익은 3억9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6% 늘었다. 자회사 베이브(Vave) 매각 효과를 제외하면 2억6100만달러로 증가율은 18%다. 매각 효과를 뺀다면 이익은 증가했지만, 전체 증가율을 반복 가능한 성장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삼성화재는 확대된 지분을 통해 캐노피우스의 성과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됐다. 앞으로 이익 기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려면 요율 경쟁과 재해 손실 속에서도 보험영업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

닐 로버트슨 캐노피우스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6일 실적발표 자료에서 “가격 원칙을 지키며 엄격하고 선별적인 자본 배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새마을금고, ATM ‘배리어프리’ 전면개편

장애인·고령자 금융접근성 보장
2.9억 투입, 사용자중심 UI·UX 개선
입출금·공과금 수납 화면도 재설계

새마을금고가 기존 자동화기기(ATM·공과금수납기)를 ‘배리어프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 이체, 공과금 업무 등 자동화기기의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는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 컨설팅 및 개발지원’ 용역을 발주했다.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개편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및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은 2억9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먼저, 사전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사용성 및 접근성을 검토, 분석한다. 국내외 선진 금융기관의 배리어프리 자동화기기 사례를 분석해 새마을금고만의 통일된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출금·입금·이체·공과금 수납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세 화면을 새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롭게 설계한다. 거래 단계별로 금융취약계층의 동작과 화면 반응을 정의하고, 비밀번호 오류, 타임아웃 등 오류 상황 시 복구 시나리오를 점검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패드·음성안내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화면을 주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음성안내와 동기화된 점자 키패드를 설계한다. 전맹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시스템 설계 후에는 사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평가단을 구성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에 따라 시스템별 항목을 평가한다.

이번 사업은 자동화기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대신 기존 기기에 신규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은 아직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노령층 고객들이 편하게 새마을금고 ATM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단계”라며 “발주 용역이 끝나면 기기 자체를 바꾼다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음성을 조절하고, 화면을 키우는 방식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수요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방식보다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23년 진행한 설문에서도 ‘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 경험은 60.4%로 은행 등 창구 방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배리어프리는 배리어(barrier·장애물)와 프리(free)의 합성어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편한 물리적·심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사회적 운동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새 수협은행장, 신학기 vs 이형주 ‘2강 구도’

내·외부 출신 3명씩, 6명 면접 진행
21일 면접, 22일 최종 후보자 선정

신학기 Sh수협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 도에 올랐다. 지원자 6명 전원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신 행장과 함께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모집 공고에 서류를 접수한 6명 전원을 면접자로 올렸다. 면접은 이날 21일이며, 22일 최종 후보자가 선정된다.

면접자는 수협은행 내부 출신 3인과 외부 출신 3인으로 구성됐다. 내부 출신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과 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정철균 전 수협은행 부행장이 도전장을 내민다. 외부 출신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강철승 한국수산업자협회 대표,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 6인 후보 면면은

신 행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창원 출생이다. 지난 1995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수협은행 전략기획부장, 남부 광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한 뒤 2024년 말 은행장 자리에 올랐다.

박 전 부행장과 정 전 부행장 역시 30년 정통 ‘수협맨’이다. 박 전 부행장은 1968년생으로 수협은행 일선 지점장과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서부광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정 전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금융기업부 전략기획팀장과 감사실장, 동부광역본부장, 기업그룹 부행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외부 출신 인사인 이 원장은 1972년생으로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2018~2020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부속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현재 FIU 원장을 맡고 있다.



신학기
Sh수협은행장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강 대표는 1948년생으로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수산청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며 수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 BNK 사외이사는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 서기관을 지냈다. 이후 CJ그룹을 거쳐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 신학기 vs 이형주… ‘2파전’

금융권에서는 신 행장과 이 원장을 유력 후보로 보는 분위기다.

신 행장의 경우 자산운용사 인수, 증권사 인수 등을 연속으로 추진하며 비은행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를 마무리하며 Sh수협 자산운용을 출범시켰다. 현재는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현직 1급 고위공무원으로, 당국과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직 고위공무원이 수협은행장직에 지원한 것이 이례적인 만큼, 정부 측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제3의 후보 가능성도

낙한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와 함께 2파전 구도에서 벗어나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협은행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인선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식으로, 수협은행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자리를 목적으로 오는 인사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결국 낙한산 인사에 대한 의심은 위원회의 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83주 연속 오름세

성북구 아파트 올해들어 14% 상승
이어 구로 11.06%, 강서 11.01% 등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대출규제로 15억 원 이하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들어서는 10%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담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는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아파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8% 상승했다.

서울은 한 주간 0.2%가 올랐다. 전주(0.22%)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83주 연속 쉬지 않고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거래로 이어졌지만 선호도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하위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북구(0.46%)는 미아·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43%)는 창·쌍문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43%)는 홍제·홍은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 성북구가 13.5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구로 11.06 ▲강서 11.01% ▲서대문 10.93% ▲관악 10.40% ▲노원 10.39% ▲중구 10.28% ▲동대문 10.1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5%, 0.30% 하락했고, 송파구도 -0.0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아, 14일 두번째 PBV ‘PV7’ 공개

유럽 등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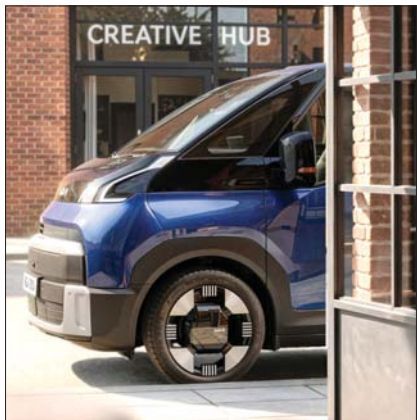
(목적기반차량)

PV5 통해 전기 밴 시장 상품성 입증
PV7, 대형 차체에 유연한 공간 갖춰
다양한 형태로 고객 요구 대응

기아의 대형 전동화 목적기반차량(PBV) ‘더 기아 PV7’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기아는 ‘PV5’의 흥행에 이어 두 번째 PBV 모델인 PV7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전동화 모빌리티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아는 오는 14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에서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1531㎡ 규모의 전시관에 PV7 3대와 PV5 7대를 전시하고, 고객의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PBV 전략을 선보인다.

기아가 PV7의 첫 공개 무대로 하노버를 선택한 것은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전동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데이터포스에 따르



기아 ‘더 기아 PV7’ 티저 이미지.

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 경량용차 시장은 12만50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경량용차 시장이 8.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PV5가 속한 C-세그먼트 전기 밴 시장은 26.6% 성장한 4만4810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PV5는 올해 상반기 1만3603대가 판매돼 점유율 30.4%로 1위를 차지했다. 출시 1년도 되지 않은 신차가 유럽 전기 밴 시장의 선두에 올라선 셈이다.

PV5의 경쟁력은 패시저, 카고, 사시캡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과 상품성을 높였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6 세계 올해의 밴’에도 선정됐다.

기아는 PV5의 성공을 PV7으로 확대한다. 내년 유럽 출시 예정인 PV7은 E-GMP.S를 기반으로 대형 차체와 넓고 유연한 공간을 갖춰 전문 업무부터 일상 레저까지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PV7이 진입하는 유럽 미드사이즈 전기 밴 시장도 올해 상반기 5만7804대로 전년 대비 9.2%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PV5로 전기 밴 시장에서 상품성을 입증한 기아가 PV7을 통해 상용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유럽 PBV 시장에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PV5 성공을 PV7 확장’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PBV 전략이 유럽 상용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과 맞물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2026 현대모비스 R&D 테크데이’ 로보틱스 핵심부품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미래 로보틱스’ 기술영역 확장

R&D 테크데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2종 첫 공개

현대모비스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넘어 로보틱스로 기술 영역을 확장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사 수주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2026 R&D 테크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모빌리티 부품에서 미래 로보틱스로의 확장’이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전장·새시·안전 등 모빌리티 핵심부품 6개 존을 거쳐 로보틱스 부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로봇용 액추에이터 2종을 처음 공개한다.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핵심 기술 중에는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가

상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음향시스템 등 인포테인먼트 기술이 눈길을 끈다. 현대모비스는 사용자 경험(UX)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몄다.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이로 제품’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기술 경쟁력과 수주 가능성을 갖춘 10개 제품을 선정해 글로벌 주요 수주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스истем은 파우치·각형·원통형 등 다양한 배터리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고객사의 선택 폭을 넓혔다. 수냉식과 공냉식 냉각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벤팅밸브를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자율주행과 주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제어도 선보인다. 기존에는 주행과 주차 제어가 각각 원거리와 근거리 인지를 담당했지만 이를 통합해 저속주행과 주차 상황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HD현대重, SMR 주기기 공장 세운다… 1조 투자

발전엔진 생산능력 두 배 이상 확대
차세대 원전을 새로운 성장축 육성

HD현대중공업이 1조원 넘게 투입해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기반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커지는 전력시장에 대응해 발전엔진과 차세대 원전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발전엔진 신규 생산기지와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 구축에 총 1조722억원을 투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8336억원을 투입해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힘센(HIMSEN)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생산 규모는 3GW다.

신규 생산기지는 약 21만5000㎡ 부지에 들어선다. 엔진 조립·시운전 공장과 크랭크샤프트 가공 공장, 엔진 블록 주조 공장 등이 조성된다. 내년 1분기 착공해 오는 2028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HD현

대는 이를 통해 연간 4GW 규모의 육상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산 거점도 용도별로 나눈다. HD현대중공업 울산 본공장은 선박용 힘센엔진 생산에 집중한다. 신규 공장도 전남 영암 HD현대엔진은 육상 발전용 엔진을 생산한다.

전체 힘센엔진 생산능력도 늘어난다. HD현대는 선박용과 육상용을 합쳐 현재 3GW인 생산능력을 오는 2030년 7.2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MR 사업에는 2386억원을 투자한다. 울산조선소 내에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을 건립한다. 오는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을 낮추고 주요 설비를 모듈화한 차세대 원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SMR 시장이 오는 2050년 150GW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SMR 주기기 수요 확대에 대비해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HD현대는 미국 테라파워와 SMR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 겸 회장을 만났다. 양측은 차세대 SMR인 ‘나트륨(Natrium)’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전엔진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과 8월 미국 에이페리온에너지그룹과 코반에너지그룹에서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6271억원과 9560억원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AI 시대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엔진과 SMR에 대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한화시스템, ‘우주 AI 솔루션’ 최초 공개

위성 촬영지역 영상 AI 실시간 분석

한화시스템이 위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우주 AI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위성 정찰과 지상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우주·지상 융합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화시스템은 9일(현지 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6’에서 글로벌 우주·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주 AI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운용 중인 위성이 촬영한 동유럽 지역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시연됐다.

우주 AI 솔루션은 다양한 위성이 지상국으로 전송한 영상 데이터를 AI로 판독·분석해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자동 객체 탐지와 상황 패턴 분석, 이상 징후 감지 등을 수행해 지휘관과 사용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위성 영상 수집부터 AI 융합 분석, 의사결정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적군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주요 지역의 건물과 지형 변화를 비교·분석해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데 활용된다.

전자광학(EO) 위성과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영상의 개별 분석뿐 아니라 두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 분석도 지원한다. SAR 위성은 날씨와 주·야간 조건에



김선 한화시스템 우주사업총괄이 ‘MSPO 2026’에서 글로벌 우주산업 및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에게 ‘우주 AI 솔루션’을 소개하는 모습.

/한화시스템

영향을 받지 않고 지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흑백 레이다 영상의 특성상 육안으로 객체를 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화시스템은 AI를 활용해 SAR 영상에 포착된 항공기와 선박, 차량 등을 초 단위로 식별하고 영상 해상도를 높였다.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EO 위성 영상까지 결합해 SAR 영상의 판독 한계를 보완했다.

이번 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해상도 1m·0.5m·0.25m급 소형 SAR 위성뿐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0.15m급 초저궤도(VLEO) 초고해상도(UHR) SAR 위성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화의 타격체계 및 사격지휘체계(FDC)와 연동할 수 있는 전용 인터페이스도 구현했다. 위성으로 표적을 탐지·분석한 뒤 관련 정보를 지상 무기체계에 전달해 정찰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원관희 기자 wkh@

SK하이닉스, 작년 일 평균 17만t 용수 절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2026’ 참가
2030년까지 6억t 수자원 절감 목표

SK하이닉스가 수자원 절감과 재이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7만톤의 용수 사용을 줄인 데 이어 2030년까지 누적 6억톤의 수자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1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26’에 참가해 이 같은 수자원 관리

성과와 2030년까지 누적 6억톤의 수자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용·폐수 절감 TF’를 운영하며 생산 과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재이용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자원 절감량은 3억337만 톤으로 목표치인 2억6400만 톤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를 3억2900만 톤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하는 노력도 확대하고 있다. 용수 재이용량은 2022

년 4788만 톤에서 지난해 7359만 톤으로 약 54%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취수-사용-재이용-방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수자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폐수 처리에는 오존산화장치, 활성탄, 다단 응집·침전 시스템 등 고도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국제물주간 전시 부스를 ‘Water Loop(순환하는 물)’ 콘셉트로 구성했다. 물의 순환을 형상화한 공간에서 수자원 절감과 재이용, 생태계 보전 등 회사의 주요 물 관리 활동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소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에서 열린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혁신 소상공인 'TOP 11' 선정 온고잉, 파이널 오디션 통합대상

중기부, 파이널 오디션 시상식 개최
9422개사 중 유망 소상공인 선발
80개사 본선 거쳐 최종 11곳 가려
청년 대표 49%·지역기업 78% 비중
식품 분야 66%로 가장 많이 선정

'혁신 소상공인파이널 오디션'에서 주식회사 온고잉이 통합 대상을 받는 등 올해의 혁신 소상공인 'TOP 11'이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혁신 소상공인파이널 오디션'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기업에는 ▲강원 정선 곤드레를 냉동 건조해 어디서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강식 브랜드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강원)' ▲특허 받은 포장 기술로 논산과 전국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파머씨드(논산)' ▲장성 황금보리와 술지게미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팻 사료를 만드는 '쥘이코바이오(광주)' ▲남는 비지를 활용해 소화가 잘되는 스프레드, 죽을 개발한 '정담두부집(김천)' ▲증조할머니의 방앗간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체험형 방앗간을 운영하는 참기름 브랜드 '프로제산내(부산)' ▲중주 산나물로 감빠뉴를 만드는 로컬 베이커리 베이커리이와정(충북 충주)'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TOP 11'에는 우수상을 받은 씨니사이드업(전북),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제주), 농협회사법인 안동반가주식회사(경북 안동) 그리고 인기상을 수상한 진가다감(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지난 6월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해 9422개사 가운데 유망 소상공인 534개사를 선발, 최대 6000만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아이템 경쟁력, 사업 고도화 경과 등을 평가해 파이널 오디션 참가기업 80개사를 뽑았다.

이번 행사에선 80개사 중 선정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TOP 11'을 시

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80개사의 49%는 20~30대 청년 대표였으며 지역 기반 기업(78%)도 80%에 육박했다. 분야별로 식품(66%)이 가장 많았고 생활(19%), 뷰티(10%), 패션(5%)이 뒤를 이었다.

통합 대상을 받은 온고잉은 듀유 분말과 그레놀라를 합친 한 끼 셰이크 팩 '유밀(YUMEAL)'을 출시했다. 유밀은 올리브영, 돈키호테 같은 유통 채널에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오디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 치열한 도전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며 "많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시멘트업계, 탄소저감 건축자재 확산 나서

레이콘·건설업계와 통합기술 심포지엄

시멘트업계가 탄소저감 건축자재 적용 확대를 위해 건설, 레이콘 등 관련 산업간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레이콘·건설산업 통합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시멘트협회를 비롯해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전근식 시멘트협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배조웅 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박혁호 한국실크로드시애틀 대표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근식 회장은 "시멘트산업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공정 효율 개선을 추진중이며 정부 R&D를 통해 원료와 연

료 대체를 뒷받침할 KS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저탄소 시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레이콘업계에선 배합기술과 품질관리를, 건설업계에서는 설계기준과 시공, 발주단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므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물론 산업간 신뢰제고를 함께 실현해 기준 제정에 나서자"고 전했다.

심포지엄 기조발표에선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건설산업 공급망 혁신과 정책과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준 연구위원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과 건설소재산업의 기술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멘트협회 김의철 상무는 "시멘트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혼합재 확대 및 클링커 저감 기술이 이미 실증단계에 도달했는데도 KS 및 표준 시방서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탄소중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KS 표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도 현실화 ▲시멘트·건설·레이콘 공동 R&D 지원을 각각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취향의 발견'으로 B2C 공략

논현동 플래그십에 테마 공간 선포

LX하우시스가 올 하반기 '취향의 발견'을 테마로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표 전시장 'LX Z:IN 플래그십'에서 '취향의 발견 전시공간 오픈 데이' 행사도 열었다.

10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취향의 발견'은 유행하는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색상부터 소재, 질감, 마감 등 다양한 디테일까지 개인의 취향을 옳이 반영한 공간 인테리어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8일 행사에는 노진서 LX하우시스 사장, '취향의 발견' 브랜드 앰버서더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 인테리어·리빙·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LX하우시스는 '취향의 발견' 테마의 첫 브랜드 앰버서더로 브랜딩 전문가인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를 선정, 'LX Z:IN 플래그십' 전시장 3층에 노희영 대표와 함께 협업해 '취향의 발견' 테마 공간을 구성하고 이번에 오픈 데이 행사를



LX하우시스가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LX Z:IN 플래그십'에서 연 '취향의 발견 전시공간 오픈 데이' 행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사장(왼쪽)이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시스

를 가졌다.

노희영 앰버서더는 "LX하우시스는 국내 창호·바닥재·벽장재 시장의 선두 기업인 것은 물론 우수한 여러 자재로 토달인 테리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 이번에 '취향의 발견' 앰버서더를 맡아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수많은 그린(녹색)계열 컬러 가운데 딱 내 취향에 맞는 섬세한 딥 그린 컬러를 만들어 낸 LX하우시스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고객의 세밀한 취향을 인테리어로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창업초기기업 자본잠식 '지원배제 기준' 손본다

중소 옴부즈만, 충남서 현장 간담회
설립 3년 이내 기업 예외기준 검토
2027년 사업공고부터 반영 가능성

창업초기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10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해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윈트 오석호 대표는 "설비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충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사업은 현재 공고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자본잠식 관련 지원 제외 기준과 예외기준은 2027년 해당 사업공고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안마이크론시스템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최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차세대 ESS 실증 본격화

현대자동차·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와 손잡고 사용 후 전기자동차(EV)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새롭게 활용하는 'UBE SS(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 등 5개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원익피앤이 동탄 사업장에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UBESS 실증 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차세대 ESS 사업 모델의 검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5개사 공동 사업모델 검증

E-GMP 배터리 200kWh 설비 구축

이날 행사에는 황용태 현대차·기아 EV 에너지전략실장, 주승탁 LG에너지솔루션 ESS사업부 EaaS사업담당, 이상훈 현대엔지니어링 자산기획실장, 김철호 원익피앤이 충전기사업부문 개발·생산본부장 등 참석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현대차·기아의 전용 EV 플랫폼 'E-GMP'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실증 설비는 총 200kWh(킬로와트시) 규모의 UBESS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 신설

B2B 파트너·설치 엔지니어 교육 강화

삼성전자가 친환경 난방 시스템(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을 신설하고 설치·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히트펌프 국내 생산 기반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 전기 냉난방 시장 확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 C S 아카데미에 신규 '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2035년까지 고효율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추진에 발맞춰 설치·서비스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기업 간 거래(B2B) 파트너사와 설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EHS 히트펌프 관련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냉방·온수 등을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주거환경에 맞춘 수배관 설비 설치와 유지보수 역량에 따라 실제 제품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설치·서비스 전문성이 중요하다.

새롭게 마련된 교육장은 다양한 설치환경을 고려한 실운전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교번식·축열식 물탱크와 온수 컨트롤 키트 ▲바닥난방 온수 분배기 ▲수배관 설비 ▲팬코일유닛(FCU) 등 실제 설치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전담 조직 세우고 해외 투자… 북미 RX 시장 선점 격돌

〈로봇 전환〉

국내 SI기업, 북미에 플랫폼

삼성SDS,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LG CNS, 피지컬웍스 플랫폼 실증
양사, 조직 재구성해 RX 전담 팀 신설
美 리쇼어링 맞춰 현지 공략 추진

삼성SDS와 LG CNS가 로봇 전환(RX) 플랫폼 사업에 나란히 뛰어들면서, 북미 지역이 국내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0일 SI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최근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출시 일정을 발표하며 RX 시장에 출시표를 냈다. LG CNS가 지난 5월 로봇 운영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공개한데 이어 것이다.

삼성SDS의 플랫폼은 생산 현장에서 설비와 로봇을 연결해 전체 공정을 제어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가 생산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로봇의 작업을 지시·조율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개입을 줄인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6’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SDS의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우선 430여개 제조 고객사들의 생산 라인에 로봇 자동화를 지원한 뒤 플랫폼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LG CNS는 국내 기업 약 20곳에 앞서 출시한 피지컬웍스 포지바통 플랫폼을 실증(PoC)하고 있다. 새벽배송 플랫폼 컬러와 종합 물류 기업 LX 판토스 등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이 지난 5월 7일 LG CNS RX 미디어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LG CNS

피지컬웍스를 통해 학습한 로봇이 주문 목록에 맞게 상품을 이동하고, 재고 관리까지 물류센터 전 업무를 수행한다.

삼성SDS와 LG CNS는 올해 RX 플랫폼 운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했다. 삼성SDS는 지난 6월 클라우드 사업부 내에 RX 사업팀과 실험팀을 각각 신설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AI 인프라 도입부터 소프트웨어 보안 등 전 부문을

맡는 단일 조직이다.

LG CNS는 이보다 앞선 4월 스마트 물류·로봇사업 조직에 RX 이노베이션랩을 신설했다. 공장의 전체 업무 흐름과 기술검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산업 현장에 최적화 된 RX 모델 구축이 최종 목표다.

향후 이들이 공략할 시장은 북미 제조 공장이다. 현지에서 가동 중인 국내 제조 공장을 통해 시장에 안착한 뒤 글로벌 기업으로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S는 이달 ‘리얼 서밋 2026’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지목했다. 중국에서 제고 공장을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현상을 배경으로 짰다.

LG CNS도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북미 지역에서 계열사 공장에 로봇 도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직접 개발한 로봇 ‘모바일 셔틀’이 파라바게트 텍사스 공장에서 피지컬웍스 플랫폼과 함께 투입된다.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 6월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미국의 피지컬 AI 기업 월드 로보틱스와 손을 잡았다. 앞서 KKR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한 10조원 가량의 재원도 해당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LG CNS는 산업 맞춤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고도화를 위해 미국 AI 기업 스킵 AI 컨피그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텍스 메이트에도 투자했다.

향후 RX 사업의 성패는 글로벌 제조 고객사 확보에 달렸다. 기술적으로는 그룹 내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진출 기반은 그룹 제조 현장에서 쌓아온 공정 이해도와 레퍼런스”라며 “다양한 제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SKT, 글로벌 통신사와 AI·디지털 신뢰 협력

말레이시아 ‘GSMA M360 아세안’
정재현 CEO, 동남아 기업 인사 만나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협력 방안 모색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동남아시아 통신 기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기회를 다졌다.

SK텔레콤은 9일 정재현 SK텔레콤 CEO가 글로벌 통신업계 주요 리더들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GSMA M360 아세안’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과 디지털 신뢰 구축 방안 등 현안을 다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비벡 바드리나트 GSM A 사무총장과 통신산업의 차세대 성장 기회 발굴과 AI 중심 통신 인프라 전환을 논의했다. 특히 SK텔레콤의 AI 풀스택 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디지털 범죄 예방, AI 기반의 네트워크 고도화 등 디지털 신뢰 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재현 SK텔레콤 CEO(오른쪽)와 비벡 바드리나트 GSMA 사무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SK텔레콤

정 CEO는 말레이시아 알부카리그룹의 투자기업 트레이드윈즈와도 교류했다. 기업 내에서 항만, 자동차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을 이끄는 사이드 다니알 알부카리 이사와 만나 협력 기회를 다졌다.

오후에는 일본·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통신사 및 테크 기업 경영진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에 보안 강화, 기술 주권 확보, 거버넌스 재편 등을 통해 고객

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디지털 신뢰 구축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 CEO는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는 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디지털 신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LG CNS, 9개 직무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AI·로보틱스 등서 세 자릿수 규모 총원

LG CNS는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AI·로보틱스 등 9개 주요 직무에서 세 자릿수 규모로 인력을 총원한다. 모집 분야는 ▲AI ▲로보틱스 ▲컨설팅 ▲DX 엔지니어 ▲클라우드 AM ▲아키텍트 ▲ERP ▲스마트팩토리 ▲컨버전스 엔지니어 등이다.

AI 직무는 고객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설계·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사 후 금융, 공공, 제조, 물류 등 전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에이전트 AI 서비스를 기획하며,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전환(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LG CNS의 미래 성장을 이끌 로보틱스 직무는 제조, 물류 등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고, 차세대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LG CNS는 지난 5월 국내 기업 최초로 로봇 학습·운영 통합 플랫폼 ‘피지

컬웍스’를 출시하는 등 국내 로봇 전환(RX)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컨설팅 직무는 비즈니스 이슈를 분석해 AX/D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DX 엔지니어는 디지털 금융, 공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시스템과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사학위 이상 졸업자 및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라면 전공과 관계가 지원 가능하다. 직무별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원자는 채용 시 우대할 계획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필기전형은 ‘인성성검사’와 ‘CNS 특화검사’로 구성된다.

LG CNS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KT-서울아산병원, AI 의료 서비스 개발

의료 현장 AX 모델 발굴 추진
신속 진단·진료 품질 향상 기대

KT가 정부의 AI 기본의료 정책에 발맞춰 임상 AX 지원에 나선다.

KT는 서울아산병원과 AI 의료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서울아산병원이 추진하는 ‘AI 병원’ 구현의 일환이다. ‘AI 병원’은 환자 내원 시 AI가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여러 시스템에 건강 기록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의료 AI 모델이다.

사업 협력을 위해 양측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는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김봉균 부사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AI 의료 기술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서울아산병원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등 의료 현장 인공지능 전환(AI) 모델의 발굴을 추진한다.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AI 서비스를 의료 현장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다. 내원 환자들은 대기시간 단축과 진료 품질 향상을 체감



(왼쪽부터)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김봉균 부사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10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업무협약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KT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서울아산병원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AI 의료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과를 높이는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SKB “행사 응모하고 가을야구 직관하세요”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 행사 진행

SK브로드밴드는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에서 KBO 포스트시즌 직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B 티비 플러스’와 ‘B 티비 플러스 맥스’ 가입자다. 비 티비 맥스 페스티벌은 이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그동안 KBO 올스타전과 KBS 한가위 대기획 이승철 콘서트 등 직관 기회를 제공했다.

이달에는 공식 후원사로 참여 중인 2026 KBO 포스트시즌을 준비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시리즈까지 직관 티켓을 마련했다. 응모 기간은 9월 11일부



터 27일까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페이지에서 응모 신청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모바일 B 티비 앱을 설치하고 셋톱박스과 연결하면 된다. 매 경기 5명에게 약 2매씩 최대 130매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다.

/조민선 기자

증권사 3분기 순익 66% 급감 전망… ‘거래 절벽’ 직격탄

삼성증권 등 5개사 순익 전망 1.5조
개미 빚투·거래량 동시에 하락 영향
개인투자자 회전을 회복이 핵심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작차가 3분기에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반기 실적을 끌어올린 증시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거래대금과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함께 위축되고 있어서다. 브로커리지와 운용손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며 주요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 전망치와 목표주가도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금융투자·키움증권 등 주요 5개사의 3분기 합산 지배주주 순이익을 1조 539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장 전망치를 29.6% 밑돌고 전 분기보다 66.2% 감소한 규모다.

이는 증시 활황으로 2분기 국내 61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5조 1914억원을 기록



여의도 증권가 전경

/메트로경제

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주식 거래대금이 전 분기보다 59.9% 늘면서 수탁수수료가 34.0%, 자기매매손익이 45.8% 증가했다.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 부문까지 고르게 성장하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82.1% 확대됐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주가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대금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실적을

떠받쳤던 브로커리지와 운용 부문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 3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50조 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3.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주요 5개사의 위탁매매 수수료는 39.3%, 트레이딩·기타손익은 4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둔화 우려는 증권업종 주가에도

선반영되는 모습이다. KRX증권지수는 지난 5월 6일 3362.84로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날 장중 1809.76까지 떨어졌다. 약 1년 동안 46.18% 하락하며 상반기 증시 호황과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 열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8월 개인투자자 회전율은 109%로 이전 저점 수준에 근접했다. 증시 신용공여 잔고도 지난 6월 중순 38조원에서 최근 32조원 수준으로 6조 원가량 감소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와 빚투가 동시에 줄면서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매매 수수료와 이자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정기에 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증권사에는 부담이다. 지난 8월 은행 정기예금은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가계 정기예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주식과 펀드 등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금리 상승으로 예금의 상대적인 매력력이 커진 데다 증

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의 자금 운용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증권업종의 반등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회전을 회복에 달릴 전망이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고 은행 예금 수익률도 높아진 만큼 개인 자금이 단기간에 증시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대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배당수익률과 자산관리·IB 등 비위탁매매 부문의 경쟁력이 증권사별 주가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증권업종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로 판단되며 반등의 계기는 개인투자자 회전율 상승이 될 것”이라며 “과거 회전을 고점 이후 다음 반등까지 약 2년이 걸린 만큼 이번 회전을 하락 역시 당분간 횡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불법리딩방, AI·자동매매로 계좌까지 개입

최근 5년간 신고·수사의뢰 3357건
금감원, 채널별 현황도 파악 못해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번진 불법 리딩방이 인공지능(AI)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앞세워 투자자의 계좌와 매매까지 개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고가 3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잇따라 적발됐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온라인 채널별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는 총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8건에서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에도 28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7월	합계
223	89	102	80	44	538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0	5	3	4	22

*2026년은 일제·암행점검 결과 취합중으로 추후 적발건수 확정·수사의뢰 진행 예정. /박성훈 의원실

금감원이 일제·암행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혐의를 직접 확인한 사례는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2025년 105건 등 4년간 총 359건이었다. 올해 적발 실적은 현재 점검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23건, 2023년 89건, 2024년 102건, 2025년 80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투자자의 판단 영역까지 침범한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확인됐다. 관련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 등 최근 4년간 22건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

을 불법 영업 수단으로 활용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A사는 AI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자동으로 거래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종목, 매매 시점과 가격, 리밸런싱 주기까지 구체적인 투자 판단을 대신했다.

불법 영업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 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오픈채팅·텔레그램·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확산하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허정윤 기자

개인 3조 끌어담고 외국인 8390억 팔았다

금투협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달 개인이 장외시장에서 3조원 넘는 채권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재정거래 유인이 약해져자 순매도로 돌아섰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2026년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3조 1891억원으로 전월보다 150억원 증가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를 1조 3694억원 어치 순매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채 6726억원, 특수채 4532억원, 회사채 3865억원, 기타 금융채 30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의 누적 채권 순매수액은 22조 9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채권을 8390억원 순매도하며 전월 1조 8120억원 순매수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2460억원, 6740억원 순매도했다.

원화 강세와 통화스와프(CRS) 금리 상승으로 원화 금리와 CRS 금리 간 스와프 베이스가 좁아지면서 원화 채권을 활용한 재정거래의 매력력이 낮아진 영향이다.

/허정윤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344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전 구간에서 올랐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달 18일 장중 4.751%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838%, 10년물 4.313%, 30년물 4.527%로 전월 말보다 각각 8.0bp(1bp=0.01%포인트), 5.2bp, 2.0bp 상승했다.

지난달 2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리며 두 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것도 채권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양도성에 금증서(CD) 수익률도 한 달 동안 17bp 오른 3.12%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76조 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 8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은 7조 1000억원 늘었지만 특수채와 금융채, 회사채 발행이 줄어든 영향이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은 317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글로벌 운용사 3곳과 협력

피델리티·핀코·칼라일과 업무협약
공동 상품 개발·단기자금 운용 등

한국투자증권은 피델리티인태내셔널, 핀코, 칼라일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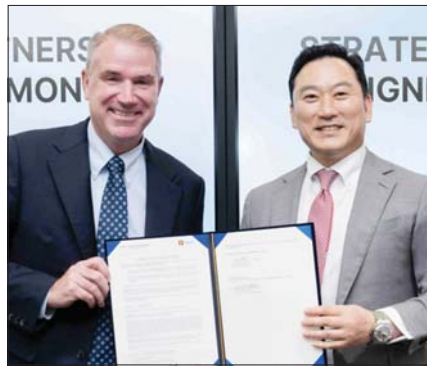
먼저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운용자산 약 7750억 달러 규모의 피델리티인태내셔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주식·채권·멀티에셋 관련 리서치를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공동 상품 개발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첫 협력 상품으로 한국·중국·미국의 기

술 기업에 투자하는 ‘한·중·미 테크펀드’ 출시를 추진한다. 피델리티의 주요 투자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PB)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핀코·칼라일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채권 전문 운용사인 핀코와는 단기자금 운용에서 협력한다. 핀코가 제공하는 글로벌 시장 전망과 주요 이벤트 분석을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독점 콘텐츠로 제공하고, 관련 펀드의 국내 판매도 확대한다.

향후에는 핀코의 운용 전략을 활용하



한국투자증권이 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세계적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 키스 메터스 피델리티 인태내셔널 사장.

/한국투자증권

맞춤형 상품을 비롯해 개별운용계좌(SMA)와 랩카운트 등 개인별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AI 훈풍에 ‘HANARO ETF’ 수익률 182%

NH-Amundi자산운용, 국내 ETF 1위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FnK-반도체 ETF’가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해당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1.65%로 집계됐다. 이는 레버리지를 제외한 모든 국내 상장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HANARO FnK-반도체 ETF는 ‘Fn Guide K-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20종목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으며 SK스퀘어, 삼성전기와 함께 주성엔지니어링, 이수퍼타시스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편입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주는 올해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과 함께 조정을 거친 이후, 8월부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배경에는 AI 투자 수요를 각인한 소식들이 자리잡고 있다. 엔비디아는 AI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의 경제적 생산성을 근거로 ‘연산이 곧 매출(Compute is Revenue)’이라는 구조를 재확인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사람 입맛은 결국 옛맛을 찾죠”... 장독대서 익는 전통의 맛

Q 르포

서 분 레 안성 청국장 명인

안성 서일농원에서 장 만들기 체험
조리과학고 학생들 메주 작업 참여
전국 식품 장인 11명 한자리 모여
청국장·김치·한과·막걸리 선배
제조기술 전수·기록화 지원 지속
체험·견학 44개소 미식코스 선정

대개의 산업을 보면 기술 개발에 후진이란 없다. 앞만 보고 내달린다. 소비자 역시 첨단이 가져다 주는 일상의 편리해 익숙해져 있다. 찬찬히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다.

“그런데요, 사람 입맛은 뒤편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서분레 명인의 단언이다. 앞의 청중 다수는 심심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누군가는 어릴 적 밥상이 떠올랐을 터. 올해 여든 줄에 들어선 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짜랑짜랑했다. 정부가 지정한 제62호 식품명인이자 청국장 제조 부문 장인이다. 지난 9일 경기 안성 서일 농원을 찾았다.

이곳엔 단채로 견학온 한국조리과학고 학생들도 보였다. 이들은 서 명인의 장 만들기 시연을 유심히 지켜보고 때론 메주 덩이 옮기기 등의 작업도 거들었다. 장소를 1학년생은 “평소 된장·간장 담그는 법을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엄청난 개수의 장독을 눈으로 보고 직접 메주와 소금물을 넣어 청국장을 담귀 보니 신기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앞으로 우



제62호 대한민국식품명인 서분레 씨.

/농식품부

리 전통식품을 이어 가는 한식 조리인이 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드넓게 펼쳐진 장독대에선 명인의 손맛이 뵈는 장류가 익어 가고 있었다. 층층이 늘어선 항아리만 2000개가 넘는다. 발효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그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경기 남부 미식·체험 관광시설로 입소문을 탄 지 오래다.

서분레 명인은 판매나무가 에워싼 실내에서 쿵을 36시간 발효시킨다. 이 과정을 거쳐 꼬릿한 냄새를 없앤다. 그러면 청국장도 된장찌개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농원 측은 청국장찌개에 손수 만든 찬과 다른 명인의 김치 등을 더해 방문객들에게 대접했다. 소문대로였다. 교복차림 학생들도, 인솔자로 동행한 교장 선생님도 모두 숟가락질하기 바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 명인 소유의 서일농원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만나는 미식여행’ 행사를 가졌다. 금정산 성막걸리를 만드는 유정길(식품명인협회장) 명인과 이하연 해물석박지 명인, 박준미 청주신선주 명인, 김규훈 신궁전통한과 명인 등 각 지역 대표 1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장류와 함께 식혜, 유과, 약과, 김치, 부각, 떡, 막걸리, 청주 등이 소개됐다.

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후계인 양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답변은 행사를 주관한 정부 측이 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전통식품 제조 기술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도록 전수자 육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 통진읍의 이기춘 문배술 명



9일 경기 안성의 서분레 명인이 청국장 담그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인(대한민국식품명인 제7호)이 대표적 사례다. 아들 이승용 씨가 부친 곁에서 가문 대대로 이어 온 제조법을 연마했다. 부자 간 전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지속됐다.

농식품부는 전통 제조법을 영상·도서 등으로 남기는 기록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에 식품명인체험 홍보관도 운영 중이다. 전국 각지의 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다. 199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6명이 명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작고 등의 사유로 지정이 해제된 데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수는 올해 기준 88명이다.

농식품부는 10일 ‘식품명인 미식 여행길 코스’를 제작·배포했다. 여행지에는 전국 식품명인이 운영중인 시설 중에서

체험·견학 등이 가능한 44개소가 담겼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의 6개 권역이다. 전통식품과 지역, 관광을 하나의 미식 여행으로 묶은 것. 관광객이 명인의 제조·조리기술을 직접 접하고 전통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야기를 경험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농산물과 향토음식, 문화·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세부 정보는 대한민국식품명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명인 미식 여행길이라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함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표 맛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경기)=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노사발전재단, 주 4.5일제 도입기업 점검

에스엔제이, 주 36시간제 전환 추진
임금 삭감 없이 생산성 유지 모색

노사발전재단이 주 4.5일제(36시간) 도입을 준비 중인 제조업 사례를 소개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은 유지하되 서 임금 삭감은 없는 기업을 찾았다. 재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용 기기제조기업 에스엔제이(대표 장태희)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노사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

간 단축 지원단의 6번째 현장 방문이다.

에스엔제이는 ‘적은 시간 많은 연봉’, ‘보다 나은 일터’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주 3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회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다.

컨설팅을 통해 영업·제조 등 부서별 업

무 특성을 반영한 주 4.5일제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월·수·요일 7시간, 화·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고정형 주 36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정착 이후에는 주 4시간의 단축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50메가와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환경 공공데이터 8건 공개

수도권매립지공사, 6년간 70건 개방
발전량·매립처리·침출수 현황 포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환경·자원에너지와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공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해 온 일체의 데이터다.

공사는 축적해 온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대국민 개방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발굴한 뒤 공개 가능 여부 및 활용 가치 등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개방해 왔다. 올해는 주요 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8건의 공개를 완료했다.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발전량 및 운영현황(1.9MW·2.4MW) ▲매립가스 발전시설 발전량 및 운영현황(50MW) ▲폐기물 매립 처리 현황 ▲침출수 처리 현황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운영현황 ▲고화처리시설 운영현황 ▲배출량 통계 정보 등이다.

공개된 데이터가 연구·분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고사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사는 지난 2020년 이후 6년간 총 70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앞으로도 업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 중 공개 필요성과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 데이터의 항목과 기준을 정비하고 품질을 관리해 데이터의 활용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병익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찾아 공개하고,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가치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진공, 3억달러 포모사 채권 발행... 공공기관 최저금리 수준

지난해보다 3bp 낮은 금리로 조달
해외 해양·물류 인프라 지원 활용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대만 금융시장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보다 낮은 금리로 5년 만기의 외화채권을 확보한 것.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달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진공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3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포모사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포모사 채권은 해외 기관이 대만 금융

시장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해진공은 2023년 처음 포모사 채권을 발행한 이후 이번까지 4차례의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대만과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외화 자원(달러)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해진공은 매년 포모사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며 투자자 기반을 확대한 결과, 지난해보다 3bp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달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발

행한 포모사 채권 가운데 최저금리 수준을 달성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우리 해양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와 국내 해운 선사의 핵심 운송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LNG) 수출터미널과 뉴저지 지역 물류센터 등 해외 해양·물류 인프라 사업 투자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우리 해양 기업의 해외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주요 해상 운송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반도체 계약학과 강세·의대 약세… 서·연·고 수시 지원 희비

연고대 반도체 지원 5.2% 늘어
고려대 반도체공학 21.1% 급증
서·연·고 의대는 11.3% 감소
의대 경쟁률도 일제히 하락세
안정지원·지역의사제 분산 영향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연세대·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5.2% 늘어난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11.3% 줄었다. 반도체 계약학과 선호가 높아진 가운데 의대는 안정지원 경향과 지방권 지역의사제 선발 확대에 따른 분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 계약학과 지원자는 총 1223명으로 전년 1163명보다 60명(5.2%)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지원자는 408명으로 전년

반도체 계약학과 2027 정시합격 예측점수 10월 모평 원점수 기준

1. 의치한 VS 반도체 계약학과 VS 서연고 자연학과

구분	의대	치대	연고대	한의대	약대	SKY 이공계
평균	288.5	281.6	274	274.4	270.5	267.1
최대	297	293	274	287	289	289
최저	279	274	274	270	267	258

※ 국수합 원점수 기준(국어, 수학, 탐구2과목 합산) / SKY 이공계는 대학별합을 제외한 수시합

2. 의치한 및 반도체 계약학과 대학별 합격선

대학명	원점수	최대	최저	대학명	원점수	최대	최저
연세대	287	293	281	연세대	287	293	281
고려대	286	292	280	고려대	286	292	280
서울대	285	291	279	서울대	285	291	279
한양대	284	290	278	한양대	284	290	278
고려대	283	289	277	고려대	283	289	277
연세대	282	288	276	연세대	282	288	276
한양대	281	287	275	한양대	281	287	275
고려대	280	286	274	고려대	280	286	274
연세대	279	285	273	연세대	279	285	273
한양대	278	284	272	한양대	278	284	272
고려대	277	283	271	고려대	277	283	271
연세대	276	282	270	연세대	276	282	270
한양대	275	281	269	한양대	275	281	269
고려대	274	280	268	고려대	274	280	268
연세대	273	279	267	연세대	273	279	267
한양대	272	278	266	한양대	272	278	266
고려대	271	277	265	고려대	271	277	265
연세대	270	276	264	연세대	270	276	264
한양대	269	275	263	한양대	269	275	263
고려대	268	274	262	고려대	268	274	262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 2027학년도 반도체 계약학과 정시 합격 예측점수표가 게시돼 있다. /뉴스시스

337명보다 71명(21.1%) 증가했다. 경쟁률은 14.57대 1로 2021학년도 학과 신설 이후 가장 높았다. 지원자 수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삼성전자와 연계한 연세대 반도체 계약학과에는 올해 81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826명보다 11명(1.3%) 감소했다. 경

쟁률은 10.87대 1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14.57대 1)보다 낮았다.

두 대학을 합친 지원자가 증가한 데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와 지원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연세대에서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고려대에서 20%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수험생 선호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대에서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총 368명(11.3%) 감소했다.

세 대학 모두 지원자가 줄었다. 서울대 의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100명(9.5%) 감소했고 연세대는 85명(12.4%), 고려대는 183명(11.9%) 줄었다.

경쟁률 역시 세 대학 모두 하락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 10.92대 1에서 올해 9.88대 1로 떨어졌고, 연세대는 10.86대 1에서 9.51대 1로 낮아졌다. 고려대도 22.97대 1에서 20.24대 1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서연고 의대 평균 경쟁률은 2021학년도 12.42대 1에서 2025학년도 18.82대 1까지 높아졌지만, 2026학년도에는 14.47대 1로 크게 떨어졌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지원 감소에 수험생들의 안정지원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2027학년도가 현행 대입제도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인 만큼, 고3 수험생들이 재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울 주요 의대에 소신·상향지원하기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을 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권 의대 지역의사제 모집 확대도 최상위권 자연계 수험생의 지원을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에 집중되기보다 지방권 의대 등으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지원 상황을 보면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는 안정지원 경향과 지방권 지역의사제 모집 확대 등에 따라 상위권 수험생의 지원이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양재대로 지하차도 연결로 정체 풀린다

대모지하차도 내일 오후 11시 임시개통
매한~염곡동서~구릉~대모~일원 연결

양재대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인 구릉마을입구 교차로와 개포3·4단지 교차로 사이를 지하로 잇는 대모지하차도가 개통한다. 매한지하차도부터 일원지하차도까지 양재대로 주요 지하차도가 연결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통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11시부터 대모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지하차도 구간을 먼저 개방하기로 했다.

대모지하차도는 총연장 1174m, 왕복 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양재대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하로 통과해 기존 구릉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를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양재대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서울의 주요 동서 간선도로다. 평소 교통량이 많아 주요 교차로마다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양재대로 주요 구간에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왔다. 일원지하차도는 1993년 12월, 구릉지하차도는 2014년 9월 개통했다. 염곡동서지하차도는 2019년 12월, 매한지하차도는 2020년 11~12월 각각 문을 열었다.

이번 대모지하차도 개통으로 매한~염곡동서~구릉~대모~일원으로 이어지는 양재대로의 주요 지하차도축이 완성된다.

임시 개통에 따라 일부 차로와 교통 동선은 변경된다. 영동대로·삼성로·선릉로에서 양재대로 양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구릉터널사거리에서 구릉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직진한 뒤 구릉지하차도 우측 상부도로로 나가 구릉사 앞 교차로 육교 아래에서 유턴해 구릉터널로 진입해야 한다. 개포로 또는 인주로8길 방향으로 우회해 개포지하차도를 거쳐 구릉터널로 이동할 수도 있다.

삼성로·선릉로에서 양재대로 수서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일원지하차도 진입이 제한된다. 직진한 뒤 일원지하차도 상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영동대로에서 양재대로 양재 방향으로 가는 차량도 대모지하차도에 진입할 수 없어 지하차도 우측 상부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임시 개통 이후에는 지하차도 상부도로 복구와 시설녹지 조성 등 남은 공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 처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고양, 미래 항공 모빌리티 성장동력 모색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고양시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고양시는 9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제83회 고양경제포럼에 참석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전망과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양경제포럼과 한국항공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고양시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인과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고양시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김상우 한국항공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발제를 통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흐름과 향후 전망을 소개했다. 특히 고양시가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입지 여건을 활용해 관련 산업에서



민경선 고양시장.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을 넘어 교통과 물류, 관광, 도시개발은 물론 산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미래산업”이라며 “한국항공대학교를 비롯한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수도권 접근성을 갖춘 고양시는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 타이어 유래 오염물질 ‘자가분해’ 메커니즘 규명

6PPD-Q가 과초산 직접 활성화
외부 촉매 없이 분해 가능성 확인

인하대학교 최아영 박사과정생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스스로 분해되는 반응 원리를 밝혀냈다.

인하대는 환경공학과 한창석 교수 연구실 소속 최아영 학생이 타이어 유래 오염물질 ‘6PPD-Q’의 자가분해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Chemistry Letters’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6PPD-Q는 자동차 타이어에 쓰이는 산화방지제 ‘6PPD’가 오존과 반응하며 만들어진다. 최근 수중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는 신종 난분해성 오염물질로, 독성이 있다.

6PPD-Q 같은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없앨 때는 과초산(PAA) 기반 고도산화 처리를 거친다.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크



한창석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아영
박사과정 학생

면서도 유해 부산물은 적기 때문이다. 다만 과초산의 산화력을 충분히 끌어내려야 통상 자외선이나 금속 촉매 같은 외부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 학생은 6PPD-Q 자체가 과초산을 활성화해 자기 자신을 분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과초산 농도가 높아질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졌다. 고농도일 때는 자외선 유무와 관계없이 분해됐고, 저농도에서 자외선을 쬔 때만 라디칼(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져 반응성

이 큰 분자)’이 추가로 생성돼 분해 효율이 더욱 높아졌다.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 6PPD-Q가 과초산과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세미퀴논 라디칼’로 바뀌는데, 이 물질이 다시 과초산을 더 빨리 분해하고 추가적인 활성화 라디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결국 오염물질 스스로 산화제를 자급해 분해를 유도하는 셈이다. 최 학생은 이를 ‘오염물질 주도 산화제 활성화에 의한 자가분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최아영 학생은 “타이어 유래 퀴논 오염물질인 6PPD-Q가 외부 활성화 과정 없이도 과초산을 활성화해 스스로 분해를 유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고도산화 기반 수처리 기술 개발과 퀴논 오염물질 관련 자연의 자정 작용을 해석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29일 개막

꽃밭·공연·체험 한 공간서 즐겨

양주시가 가을철 대표 꽃 축제인 ‘2026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를 오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천일홍에 물드는 양주의 가을’을 주제로 천일홍을 비롯한 다양한 가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꽃밭과 행사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 별도의 행사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꽃밭을 거닐며 공연과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행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버블매직 쇼와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마련됐으

며,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버스킹 공연과 체험·마켓 부스가 운영된다. 꽃밭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켓 등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천일홍 가을 페스타 마라톤도 열린다. 양주시체육회가 최하의 이번 마라톤은 오는 10월 5일(월) 오전 8시에 개최되며, 참가자들은 천일홍이 만개한 가을 풍경을 달리며 양주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천일홍 가을 페스타는 아름다운 꽃밭 자체가 하나의 축제장이 되도록 구성했다”며 “공연과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즐기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양주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K-뷰티 열풍타고 올리브영·실리콘투, 글로벌 유통망 확대

**CJ올리브영 단독 매장 운영
B2B 유통 병행 ‘투 트랙’ 전략
실리콘투 ‘모이다’, 美·英 등
2027년까지 매장 100개 구축**

K뷰티의 글로벌 전성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뷰티 유통을 이끄는 CJ올리브영과 실리콘투가 각기 다른 ‘2인 2색’ 확장 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1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국내 오프라인 거점을 향한 외국인 대상 ‘K쇼핑’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북미 시장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올리브영의 국내 외국인 누적 결제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결제 건수만 1101만 건으로 매장 영업시간 기준 0.9초당 1건의 외국인 결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오프라인 매출 중 외국인 비중은 2022년 2%에서 33%까지 급증했다.

올리브영은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직접 진출을 본격화했다. 올해 5월과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모이다’ 포르투갈 2호점 전경.

/실리콘투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와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1호점과 2호점 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달부터 미국 전역 580여 개 세포라 매장에서 K뷰티 전용 ‘올리브영 K뷰티에잇’ 매대 운영을 시작했다.

단독매장으로 K뷰티 브랜드 경험을 제

공하고 현지 유명 뷰티 편집숍 세포라를 통해서는 기업과 기업 거래(B2B) 사업 및 유통 접점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특히 이번 세포라 내 매대는 북미 오프라인 시장 안착을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19개 K뷰티 브랜드의 150여 종류의

제품이 대거 입점한다. 실제로 동아제약의 트러블 케어 브랜드 파티온과 같이 제약 기술에 기반해 검증을 거친 더마 브랜드부터 신흥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톰 등까지 동시 선보인다. 폭넓은 구성으로 미국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CJ올리브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독보적인 역량을 쏟아내는 동시에 또 다른 뷰티 유통사 실리콘투는 일찍이 해외 핵심 거점을 확장하며 입지를 넓혀 왔다.

2024년 6월 미국, 같은 해 12월 영국 등에서 K뷰티 편집숍 ‘모이다’를 내놓으며 선제적으로 나섰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모이다 매장을 100개 이상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들어 유럽에서 연속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8월과 9월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매장을 추가했다. 현재 포르투갈 1호점과 리스본 2호점을 통해 핵심 상권에 자리를 잡았다. 기존 매장을 갖춘 지역에서는 고객 참여형 행사를 꾸며 브랜드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에서의 경우, 지난 7월 파리 샹젤리제에서 플

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역대 글로벌 오프라인 매장 최고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리콘투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해외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 시설에도 투자한다. 지난 9월 국내 경기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51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무인운반로봇, 창고관리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도 도입해 물류 처리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실리콘투는 올해 2분기 실적(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4026억원, 영업이익은 83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 59% 급증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인 43%는 유럽 매출 1734억원이다.

국내 한 인디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진출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면 서도 글로벌 영토 확장 경쟁이 K뷰티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셀트리온 ‘옵리클로’, 유럽 26개국 안착

**스페인서 점유율 90% 넘어서
주요국서 성과… 유럽 시장 확대**

셀트리온의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옵리클로’가 유럽 26개국에서 판매되며 빠른 시장 침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옵리클로는 스페인에서 올해 7월 기준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이탈리아에서도 당초 사업 목표를 웃도는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옵리클로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옵리클로를 유럽에 출시한 데 이어 올해 8월 300mg 제형을 추가로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5~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유럽호흡기학회’(ERS)에 참가해 옵리클로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알렸다.

셀트리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요



셀트리온 ‘옵리클로’

시장에서 확인된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과의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별 특성에 맞는 영업·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옵리클로의 성과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RS는 매년 전 세계 약 2만 명의 호흡기 분야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호흡기 학술대회다.

셀트리온은 이번 학회에서 독립 부스를 운영하고 ‘Similar, but Different’를 핵심 콘셉트로 옵리클로의 제품 경쟁력을

소개했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라는 바이오시밀러 본연의 가치와 함께 실제 의료 현장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 특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옵리클로는 75mg·150mg·300mg 등 다양한 용량으로 구성됐으며, 프리필드시린지(PFS)와 오토인젝터(AI) 등 복수의 디바이스를 제공해 환자 상태와 투여 환경에 따른 선택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보관 안정성과 편의성,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구성, 안정적인 공급 역량 등도 주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옵리클로는 유럽 26개국으로 판매 기반을 넓힌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기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양한 용량과 디바이스,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별 입찰과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을 강화해 성과가 확인된 시장 확대 모델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조아제약, 본스칼엠정 디자인·포장 새단장

120정 2개 → 단품 구성 변경

조아제약이 칼슘·마그네슘 복합 영양제 ‘본스칼엠정’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조아제약은 일반의약품 ‘본스칼엠정’ 디자인과 포장 단위 재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주요 성분과 효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품 전면에 뼈 그림을 그렸다. 칼슘제 특성, 뼈 건강과 피로 회복 관리 기능 등을 설명한다.

본스칼엠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칼슘 결핍 증상 완화, 육체 피로 및 근육통 개선 등에 효과를 갖는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배합했으며, 체내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장애 부담이 적은 시트르산칼슘을 주성분으로 처방했다. 또 활성형 비타민B1, 비타민D3, 비타민B2, 아연 등을 복합했다.



‘본스칼엠정’

/조아제약

이와 함께 기존 120정 2개 구성에서 120정 단품으로 변경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복용 편의를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브랜드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시몰, 영국 귀족 티타임 담은 치약 3종

자몽·라임·그린티 향 구현

일상적인 양치 시간을 영국 귀족의 티타임처럼 감각적인 웰니스 순간으로 바꿔 줄 구강 관리 신제품이 등장했다.

LG생활건강은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에서 ‘오리지널 치약 티 에디션’ 3종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19세기 영국 귀족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티타임 향을 구현한 제품이다.

‘자몽 블랙티’에는 자몽을 떠올리게 하는 주황빛 제형을 활용해 늦은 오후 정원에서 감상하는 노을 정취를 표현했다. 라임 앤 시슬트’는 여름 해변의 청량함을 느끼게 하고 ‘그린티 민트’는 테라스에 앉아 즐길 수 있는 산뜻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1450ppm의 고불소를 처방해 기능성을 강화했다. 효능 연구를 통해 구강 유해균 성장 억제율 99.9%를 기록했다. 또 인체적용시험에서 구취 유발 성분을 15시간 동안 최대 96% 감소시켰다.



LG생활건강 ‘유시몰 오리지널 치약 티 에디션’

트리에탄올아민, 벤조산나트륨,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염화세틸피리디늄 등은 첨가하지 않아 안전성도 갖췄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불소 치약의 입증된 효능에 부드러운 티 향을 더해 브랜드의 감각적인 매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며 “치아 관리에 민감한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정관장, ‘지삼·양삼’으로 홍삼정 고급화

프리미엄 포트폴리오 세분화

정관장이 원료의 희소성과 품질 중시하는 최근 건강관리 수요를 겨냥해 프리미엄 홍삼정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다.

정관장은 ‘홍삼정지’와 ‘홍삼정양’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기존 ‘홍삼정 마스터 클래스’를 리뉴얼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천삼·지삼·양삼으로 이어지는 뿌리삼의 등급 가치를 홍삼농축액까지 확장해 소비자가 원료의 희소성과 품질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했다.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에 따라 면역력 증진·혈소판 응집 억제 등을 통한 혈액흐름·피로 개선·기억력 개

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홍삼은 체형과 내부조직, 색택 등을 기준으로 천삼·지삼·양삼 등으로 구분된다. 지삼은 전체 홍삼 가운데 상위 약 2%, 양삼은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귀한 홍삼이다.

‘홍삼정지’는 엄격하게 선별한 지삼만을 100% 농축한 제품이다. 희소성이 높은 지삼을 농축액 한 병에 오롯이 담아 깊고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홍삼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홍삼정양’은 양삼을 100% 농축해 홍삼 고유의 맛과 향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다. 2012년 출시한 ‘홍삼정 마스터 클래스’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신규 프리미엄 홍삼정 라인업과 디

자인 정체성을 통일해 정관장 프리미엄 홍삼의 헤리티지를 한층 강화했다.

‘홍삼정지’, ‘홍삼정양’, ‘홍삼정 마스터 클래스’에는 정관장의 철저한 원료 관리 시스템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관장은 100% 계약재배를 통해 씨앗을 뿌리기 전 2년 동안 토양을 관리하고 이후 6년간 재배한 인삼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홍삼을 선별한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43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품질을 관리한다.

KGC 관계자는 “건강관리가 일상적인 자기투자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천삼·지삼·양삼으로 이어지는 뿌리삼의 프리미엄 가치를 홍삼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박진주 려운 그리고 최수영

감독 이철하 제작 CGV 픽처스 윌(OAL) 배급 CGV 픽처스 제작 윌(OAL) 15세이상관람가

절찬상영중

올 여름 시원하게 OK?

오키마담2



롯데, ‘디자인전략회의’서 브랜드 정체성·방향성 점검

신동빈 회장 포함 약 50여 명 참석
주제 ‘상상, 그 너머를 상상하라’
AI 접목 디자인 혁신 전략 공유도

롯데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6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해 롯데지주 대표이사과 실장, 주요 계열사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디자인전략회의의 주제는 ‘상상, 그 너머를 상상하라(Imagine the Unimagined)’로 회의에서는 내년 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 쌓아온 롯데 고유의 브랜



롯데는 10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6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젊은 디자이너들의 AI 프로젝트 결과물인 ‘로티로리 로봇 롯데월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지주

드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향후 그룹을 이끌어갈 디자인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룹 브랜드 가치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디자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도 공유했다. 이를 위해 롯데는 그룹 내부 디

자인 플랫폼 ‘롯데 AI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발할 계획이다. 롯데 AI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룹의 경영,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AI 생성 및 검증 과정에 반영해 결과물을 만드는 AI다.

회의장에서는 창립 이후 롯데그룹을 대표하는 브랜드와 사업을 조명하는 전시와 함께 고객 관점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체화한 상품 개발 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했다. 롯데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보드의 AI 프로젝트 결과물인 ‘로티로리 로봇의 롯데월드 안내 서비스’와 ‘증강현실(AR) 기반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공개됐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공영홈쇼핑, 국가유공자에 밥술 기부

공영홈쇼핑이 한가위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전기 압력 가마솥 400대를 기부했다. 1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과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국가유공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공영홈쇼핑



소진공 임직원, 선양소주 공로상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8일 (왼쪽 세번째부터)소진공 유통지원팀 임상훈 팀장, 홍보팀 임준섭 팀장, 유통지원팀 문성연 대리가 ‘착한소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양소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진공

삼성전자서비스, ‘현금 없는 센터’ 운영

17일부터 전국 16곳서 시범 운영
탄소 감축·자원 재순환 추진도

삼성전자서비스가 현금 사용 감소에 맞춰 서비스센터 결제를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결제·정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전자영수증과 부품 단위 수리 등 친환경 서비스도 강화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서비스센터에서 ‘현금 없는 서비스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와 애플카드, 삼성페이, 계좌이체 등 디지털 결제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권을 비롯해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 지역 16곳이다.

이번 조치는 서비스센터에서 현금 사용이 꾸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소모품 구매나 수리비 결제에 현금을 사용한 비중은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현금 없는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비용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고 고객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 운영 후 고객 의견을 반영해 전국 서비스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업무협약을 맺고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전체 영수증 가운데 전자영수증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발급된 영수증은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현금 없는 서비스센터 도입 기념 촬영. /구남영 기자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유상 서비스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였다.

전자영수증 발급은 정부의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가입자는 전자영수증을 비롯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자영수증 발행으로 연간 나무 12만그루를 보호하고 탄소배출량 2만2000톤을 감축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종이사용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제품 수리 과정에서도 자원 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고장 난 부분만 바꾸는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가 대표적이다.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재사용해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폐기되는 부품도 줄이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6월 폴더블 스마트폰 단품 수리가 가능한 센터를 147곳에서 158곳으로 늘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선플재단, ‘AI 딥페이크·악플’ 추방 선언

‘선플 달기 운동 19주년’ 기념

선플재단이 국회선플위원회, 전국선플교사협의회와 함께 ‘선플(착한 댓글) 달기 운동’ 19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 롯데 서울에서 ‘AI 딥페이크·악플 추방 선언식 및 2026 선플 인권 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행사는 악플·집단괴롭힘 피해 사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과 올해 선플

인권 대사의 피해 경험 공유, 선플 인권 대사 위촉, ‘K-리스펙트’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2026 선플 인권 대사로는 방송인 김용만·서경석·락키와 오스틴 강 셰프, 블랙스완의 가비·스리아 등이 위촉됐다.

이어 참석자 전원은 존중의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의 ‘K-리스펙트’ 선언문을 낭독했다.

/김보민 기자 kbm@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한 업사이클링 기부 물품 포장 행사에 참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 목소리 재능 기부

강서구가족센터·강서점자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50대, 동화책 기부
업사이클링 제품 나눔활동도 진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목소리 재능기부를 통해 독서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서울 강서구 가족센터에 독서보조기기 50대와 동화책 400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독서보조기기와 동화책은 강서구가족센터와 시각장애인지원도서관인 강서점자도서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독서보조기기에는 지난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직원들이 직접 동화책을 낭독하고 녹음한

오디오북이 들어있다. 한국어 동화 6종, 영어 동화 2종 등 총 8종이다.

오디오북 제작에 활용된 실물 도서 400권(8종, 50세트)도 함께 기부했다. 항공사라는 회사 특성을 살려 아이들이 여행과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쓰임을 다 한 회사 부품을 유용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쓰임을 다한 플라스틱 결재판을 재가공해 비누 받침대와 치약짜개로 업사이클링(Up-cycling)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각 사내 봉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는 관련 단체와 기관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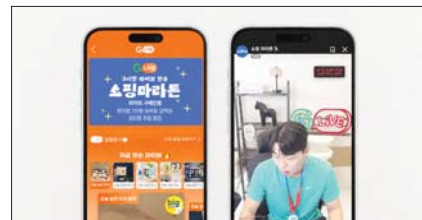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ysw@



유한양행, 대학 하반기 채용 박람회 참가

유한양행은 최근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 채용 설명 및 직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연구, 개발, 생산, 인허가 등 핵심 부서의 현직자들이 직접 상담관으로 참여했다.

/유한양행



G마켓, 추석 앞두고 ‘쇼핑마라톤’ 진행

G마켓이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부터 식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 특집 라이브방송 ‘쇼핑마라톤’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쇼핑마라톤은 통상 특정 브랜드 상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일반 라이브방송과 달리, 명절 준비에 필요한 상품을 방송당 최대 50개 선정해 3시간 동안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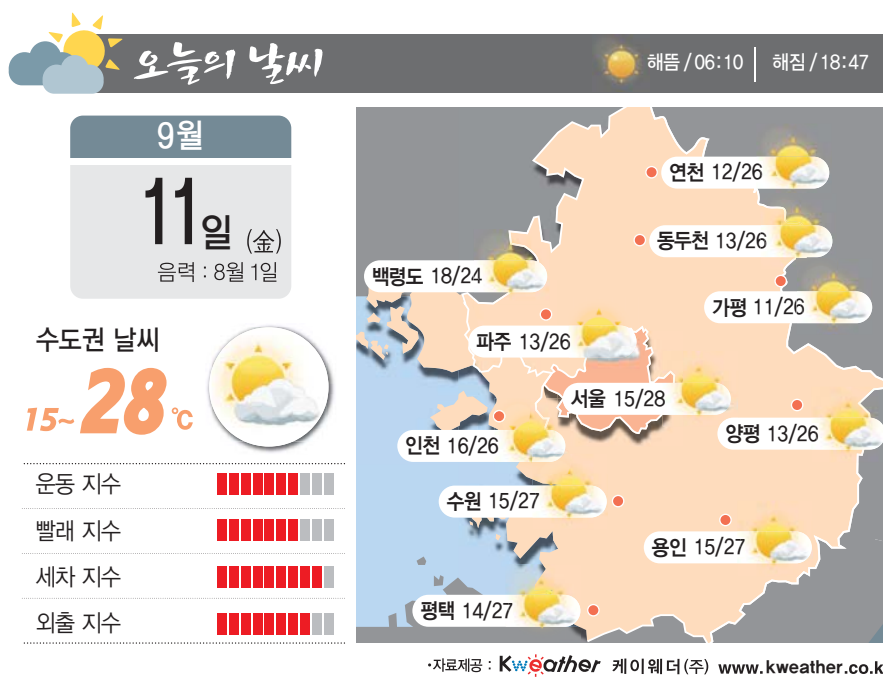
/G마켓



NH농협銀, 자산운용사 초청 농촌체험행사

NH농협은행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체험농가에서 자산운용사 및 창업투자회사 임직원 80여명을 초청해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NH농협은행과 고객사 임직원들은 농가에서 직접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타르트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었다.

/NH농협은행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6년 9월 16일(수) 오후2시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AX(인공지능 전환) × 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 · 모빌리티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14:40~15:10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강 연	15:10~15:40	김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전무 :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15:40~16:10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16:10~16:40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 :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유형과 통계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범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기 피해자였다. 범죄 피해자 수 약 175만명 가운데 38%가 사기 피해자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19%였던 수준이 두 배로 뛰었다. 그만큼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다른 범죄(폭력·절도 등)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사기는 홀로 급증해 이제는 범죄 피해의 중심축이 사기로 이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액 규모를 보면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2024년 한 해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7조7602억원으로 전년보다 50%나 급증했다. 전체 범죄로 인한 피해액 가운데 77%가 사기 피해액일 정도로 경제범죄 피해의 대부분이 사기와 직결돼 있다. 이제 사기 범죄는 개인의 불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사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여러 배경이 있다. 디지털화와 조직화를 통해 사기 범들이 더 넓은 표적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 큰 요인이다. 실제로 검거된 사기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공범이 10

명 이상 연계된 대규모 조직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 예로 공범 11명 이상이 적발된 사기사건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나 작년에는 2383건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같은 각본 있는 조직사기가 과거보다 흔해졌다. 범죄 수법이 디지털화·익명화되면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늘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이메일 사기나 암호화페를 통한 자금 세탁 처럼 첨단 기술로 자신의 흔적을 숨기는 사례가 많아졌다.

사기 피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선입견과 다른 점도 있다. 많은 사람이 ‘사기는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령대별 피해 통계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체적으로 피해액 규모는 4050대 중장년층이 크고, 노년층의 1인당 피해액도 큰 편이다. 그런데 젊은층도 적지 않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놀라게도 20대 이하 청년층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분석도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74%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에서는 5060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사기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 풀도 다양하다. 젊은층이라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통계가 보여 준다.

연령뿐 아니라 학력이나 지능도 사기 피해와 큰 상관이 없다. 경찰 수사 사례를 보면 박사 학위자, 전문직 종사자들도 사기 피해자가 되곤 한다. 심지어 경제·금융 분야 종사자나 전문 변호사조차 투자 사기에 속는 경우도 있다. 사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까. 통계에 나타난 주요 사기 범죄의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인터넷 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진화를 거듭해 여러 하위 유형으로 갈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000억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단속 강화로 2020~2022년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에 다시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급증했다. 이는 사기범들이 새로운 수법(메신저 피싱 등)으로 재차 공격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 사기의 경우 암호화폐 열풍과 맞물려 유사 암호화폐 투자나 가상자산 관련 다단계 사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기 시도는 일상화되어가고 피해 통계는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숫자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 미리 조심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최고’보다 ‘적당히 좋은 것’이 팔린다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을 찾던 시대가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부터 자동차 배터리, 주식 투자까지 ‘최고 성능’보다는 내가 필요한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비용 부담은 낮은 선택지가 주목받고 있다. 기술과 자본의 영역에서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AI 시장에서는 최첨단 모델만이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고성능 폐쇄형 모델에 비해 비용 부담이 낮고 직접 수정·활용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가중치 공개)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다. 실제로 오픈 모델과 최상위 폐쇄형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업

무 성격에 따라 비싼 프런티어(고성능) 모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픈 모델을 나눠 쓰고 있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앞세운 니켈계 배터리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LFP는 세계 EV 배터리의 55% 이상을 차지했으며, 평균 팩 가격은 니켈-망간-코발트(NMC) 계열보다 40% 이상 저렴했다.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가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이나 업종에 필요한 만큼만 투자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297조원에서 올해

6월 말 512조원으로 215조원, 72.3%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를 넘어섰다.

눈에 띄는 것은 ETF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고르는 대신 하나의 ETF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도체 협업을 좋게 본다면 반도체 ETF를 통해 관련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 비중을 높은 상품을 통해 특정 종목주가 상승에 집중할 수도 있다. ‘주식을 사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시장의 일부를 사는 것’으로 투자 방식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세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가장 좋은 것’을 사는 대신 ‘충분히 좋은 것’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최고 성능 자체가 아니라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얼마나 좋은 균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 (음 8월 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발전일로에 들어 섰습니다. 60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72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84년생 뒷사람의 자문을 받아 실행하세요.



49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유의하세요. 61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입니다. 73년생 주변의 말에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세요. 85년생 이성과의 즐거운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50년생 지혜와 재치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됩니다. 62년생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으니 신중하세요. 74년생 번덕이 심한 상대를 각별히 주의하세요. 86년생 적당한 선에서 원만히 타협하세요.



51년생 흑백을 가리키는 힘듭니다. 63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가세요. 75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지기 힘든 하루입니다.



52년생 모든 일에는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64년생 소리를 거스르거나 역행하지 마세요. 76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순탄히 성사됩니다. 88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다소 빈곤합니다.



53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습니다. 65년생 아무 근심 없이 하루가 지나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89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55년생 중심이 되어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67년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호전됩니다. 79년생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니 한결 수월합니다. 91년생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으니 때를 기다리세요.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의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친한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세요. 69년생 뒷사람의 말을 잘 새기세요. 81년생 큰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금전운이 좋으나 방심하지 마세요.



58년생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노력한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70년생 남보다 앞장서려 하지 마세요. 82년생 다른 사람의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세요. 94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은 실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 합시다. 95년생 친구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K-컬처 명리학

K컬처 바람을 타고 얼마 전에 신도이자 통번역 일을 하는 고객이 조금 색다른 손님과 필자의 월광사를 방문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매력을 느껴 찾아왔다는 미국인 여성 관광객이었다. 미국인 손님이 한국을 찾은 목적 중 하나는 최근 무속, 사주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큰 호기심을 느꼈다고 한다. 낮은 동양의 명리학이 신비롭고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다가간 셈이다. 실제 최근 사주명리를 포함한 한국의 무속과 점술 문화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이 사주를 체험하고 싶어 한국을 찾아오곤 한다. 운명에 관한 관심은 동양과 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궁금해한다.

서양에서는 별자리나 타로, 심리검사를 통해 운명의 길을 알아보려 하고, 동양에서는 사주학, 점법을 통해 삶의 흐름을 살펴본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나의 운명은 어떤 길을 걷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궁금증이다.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까지 다양한 세대가 찾아온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사주를 보고 싶어도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궁금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사회적, 종교적 시선 때문에 설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인지 누구든 일이 궁금하면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 K팝 K드라마처럼 사주명리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결란 스도쿠110

종이 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7	2	8	2	8	1	9
2	9	8	1	7	6	2	8	9
2	1	8	8	9	7	2	6	6
9	8	1	7	8	2	6	9	2
8	7	9	6	2	8	1	9	2
6	2	2	9	9	1	8	8	7
7	9	6	9	1	8	2	2	8
8	8	9	2	2	7	9	6	1
1	2	2	8	6	9	9	7	8

9	8	2	1	7	8	9	6	2
7	6	8	8	9	2	2	1	9
9	2	1	9	2	6	8	7	8
2	9	8	2	6	9	1	8	7
1	7	6	2	8	9	9	2	8
2	8	9	7	1	8	6	2	9
8	9	9	6	2	2	7	8	1
8	2	7	8	9	1	2	9	6
6	1	2	9	8	7	8	9	2

산이 만든 것을 그대로... 美 와이너리 ‘마야카마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41

산이 만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담고, 완성은 시간에 맡긴다. 130년이 넘게 지났지만 방식은 변함없다. 이른 수확으로 자연 산도를 지킨다. 양조도 포도즙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도록 개방형 콘크리트에서 발효하고, 길게는 100년 이상된 대형 오크통에서 숙성한다. 사람의 손길을 줄이니 마운트 비더의 서늘한 고도감이 한 병에 고스란히 담겼다. 나파밸리의 고전, 마야카마스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자리한 와이너리 마야카마스에서 글로벌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는 캐시 콘(Cathy Cohn) 부사장은 “1976년 파리의 심판으로 미국 와인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좀 더 힘있는 스타일로 오크숙성을 많이 하는 등 나파밸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마야카마스는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했다”며 “나파밸리에서 아름다운 전통 스타일로 와인을 계속 만들어온 몇 안되는 와이너리 중 하나로 지금의 마야카마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야카마스는 1889년에 설립돼 나파밸



마야카마스 보틀

/안상미 기자

리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한 곳이다. 긴 역사만큼 주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모두 지금의 마야카마스를 잇게한 원동력이 됐다.

설립자 존 헨리 피셔는 1880년대 당시만 해도 험준하고 외졌던 마운트 비더라는 천혜의 땅을 선점했다. 1941년에 매입한 잭과 메리테일러 부부는 이곳에 처음으로 카베르네 소비뇽과 사르도네를 식재했다. 와이너리가 마야카마스란 이름을 가진 것도 이때부터다. 지금의 와인 스타일을 확고하게 구축한 것은 1968년 밥 트래버스가 인수하면서다. 밥은 하이츠 셀

러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와인 양조 방식에 대해 확신이 있었고, 그 결과는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1971 빈티지가 10위 안에 들며 증명됐다. 미국 패션기업인 아메리칸 이글의 쇼넨스타인 회장이 지난 2013년에 마야카마스를 사들여 새로운 양조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지만 양조만큼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마운트 비더에 위치한 마야카마스 포도밭은 고도가 해발 550~730m에 달한다. 산파블로 만에서 밀려오는 서늘한 안개와 오후의 그늘은 나파밸리의 햇살이 아니라

서늘한 고도의 영향을 더 크게 한다.

시작은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닌 샤도네이부터다. 단순히 화이트 와인이어서가 아니라 마야카마스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다.

마야카마스 샤도네이 2023'은 나파밸리 샤도네이라고 하면 떠올릴 모든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2023년은 따뜻했음에도 산도는 압도적이었고, 열대과일의 풍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감귤류의 과실미에 캐모마일과 흰꽃 아로마가 어우러진 가운데 여운은 길지만 깔끔하다.

카베르네 소비뇽은 2020 빈티지와 2021 빈티지를 비교해본다. 2020년은 더웠고, 2021년은 추웠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는 봄엔 추웠지만 화창한 여름을 반영하듯 산도가 좋고 과실미도 풍성하다. 타닌도 보통 진한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의 텅텅함이 아닌 깔끔하게 느껴진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과실의 완숙미를 느낄 수 있는 빈티지다. 굉장히 더웠던 해로 산불이 나기 전 조기 수확에 나서면서 피해가 없었다. 2020이 지금 마시기 좋다면 2021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캐시는 “마야카마스는 레드 와인도 1940년대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 콘크리트 발효조를 쓰지만 나파밸리에서는 사용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이와 함께 다른 와이너리에서 최장 3개월까지 하는 발효도 15~20일 안팎 정도로 짧게해 과실미와 산도를 유지하고 숙성력을 키운다”고 전했다.

피넨레는 2003 빈티지가 장식한다. 왜 마야카마스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니 말이다.

마야카마스 카베르네 소비뇽 2003'은 23년이 지났지만 잔에 따랐을 때 색이 최근 빈티지와 크게 차이없이 가장자리 정도만 숙성을 좀 했구나 싶을 정도다. 블루베리같은 과실과 함께 제비꽃, 세이지의 향이 복합적으로 피어났고, 특유의 신선한 산도도 그대로 살아 있다.

캐시는 “마야카마스가 왜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 와인을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2003 빈티지”라며 “현재 최고의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30년은 더 숙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야카마스는 지역 원주민 언어로 울부짖는 산사자(퓨마)를 뜻한다. 나파밸리와 소노마를 가르듯 자리한 마야카마스 산맥 일대에는 퓨마가 많이 서식해 그들의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라벨도 자세히 보면 대문자 ‘M’ 안에 두마리의 산사자를 찾아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외식업 컨설턴트의 ‘AI시대’ 창업 전략

AI 인용 전략 등 경제경영 실용서

외식업 컨설턴트가 각종 컨설팅 노하우를 담아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책을 썼다. 식당·미용실·학원·병원·인테리어 업체 등 작은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룬 경제경영 실용서다.

도서출판 도서담은 외식업 컨설턴트 김유진의 신간 ‘고객은 검색창을 떠났다’를 12일 출간한다.

한국형 장사의 신,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등을 쓴 김유진 저자는 이번엔 AI에게 가게와 서비스를 추천받는 고객에 주목했다.

책은 ‘강남역 맛집’이라는 검색어와, 부모님의 환갑 식사를 위해 예산·룸·주차 조건을 함께 설명하는 질문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사업자가 강조하고 싶은 장점뿐 아니라 고객이 방문 전에 확인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게를 찾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정보를 갖추는 것이 책의 출발점이다.

검색엔진 최적화(SEO), 답변 엔진 최적화(AEO), 생성형 엔진 최적화(GEO)의 개념을 설명한 뒤 이를 매장 소개와 고객 응대의 업무로 옮긴다.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의 일치, 자주 묻는 질문(FAQ) 작성, 이용 목적과 상황이 담긴 리



고객은 검색창을 떠났다

김유진 지음 / 도서담

뷰, 여러 온라인 채널의 정보 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실행에 필요한 예시도 담았다. 6장에서는 AI에게 인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 10가지, 7장에서는 브랜드 점검 질문과 FAQ 작성법, 리뷰 가이드, 프롬프트 템플릿 등 다섯 가지 실무 도구를 소개한다. 부록에는 필수 실행 규칙 100가지를 정리했다. 독자는 책에 실린 질문과 작성 틀을 자기 업종과 고객에 맞게 바꿔보며 읽을 수 있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찾아왔는지 확인하는 일도 강조한다. 저자는 온라인 분석 수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방문 경로를 고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기록하라고 권한다. AI 활용법을 소개하면서도, 실제 서비스의 품질과 고객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책을 마무리한다.

316쪽. 2만3800원.

롯데월드 “어드벤처 30분 먼저 즐기세요”

롯데멤버스와 ‘얼리파크인’ 프로모션

롯데월드가 롯데멤버스와 함께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정식 개장 전 이용할 수 있는 ‘얼리파크인(Early Park-in)’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얼리파크인은 오는 20일 롯데월드 어드벤처 정식 개장 시간보다 30분 이른 오전 9시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는 행사다. 석촌호수 산책로에 위치한 매직게이트를 통해 매직아일랜드로 입장한 뒤 아트란티스, 해상특급, 자이로드롭 등 어트랙션

3종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프로모션 예매는 오는 14일 오전 9시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시작한다. 전액 옐포인트 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진행한다.

롯데월드는 옐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전액 옐포인트로 예매하면 본인과 동반 1인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어드벤처 부산,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롯데월드 전용 경로를 통해 옐포인트를 충전한 뒤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CGV, ‘월간신촌’ 평균 객석률 50% 돌파

이달 이누야샤·은혼 상영

CGV는 신촌아트레온에서 운영하는 재패니메이션 전용 상영 프로그램 ‘월간신촌’이 평균 객석률 50%를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시작한 월간신촌은 CGV신촌아트레온 1개 상영관에서 매일 1~2회씩 일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작과 기존 작품을 연중 상시 편성하고 선행 상영회, 4DX 특별 상영, 코스프레 드레스코드 상영회, 관객 특전 등의 이

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CGV는 월간신촌을 통해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시웨이 키르케의 마녀’를 4DX와 SCREENX로, ‘걸즈 앤 판처 최종장’ 시리즈를 4DX로 특별 상영했다. ‘극장판 암살교실 모두의 시간’ 코스프레 상영회와 ‘블리치 천년혈전 편: 화진담’ 드레스코드 상영회도 진행했다. ‘모노노케 히메’, ‘마녀배달부 키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천공의 성 라퓨타’ 등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과 ‘기동전사 건담 I’, ‘기동전사 건담 II 애전사’,

‘기동전사 건담 III 만남의 우주’ 등도 상영했다.

이달에도 상영과 이벤트를 이어간다. ‘이누야샤 극장판: 시대를 초월한 마음’은 9일 개봉에 앞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선행 상영회를 진행했다. 오는 13일에는 관객이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코스프레 리액션 상영회를 CGV신촌아트레온에서 단독으로 진행한다.

‘신극장판 은혼: 요시와라 대염상’은 4DX 단독 개봉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CGV신촌아트레온 4DX 관람객을 대상으로 홀로그램 포스터를 증정한다.

/김서현 기자



▲ 트럼프 “공화당에 투표하라… 중간선거 지면 지옥”

/사진 뉴시스

▲ 트럼프 밌코인 “사기”라던 바이든 차남, 코인 출시했다가 98% 폭락

▲ “이란 곡괭이산 핵시설 건설 활발… 美, 지하 깊숙한 곳 타격 고심”

▲ 극우 견제 나선 獨메르츠, AfD 반이민 정책에 “인종 청소”

▲ 중기상당국 “네팔에 중국산 AI 기상경보 정보 제공”

▲ 아베 뛰어넘었다… 日다카이치 내각 국정평가 역대 최고



배달앱 시장
자율상생 한계
정부 개입 요구
L1

metro®

Life

올리브영·실리콘투
글로벌 확장전략
‘2인 2색’
L2



햇살 머금은 소나무 숲길, 초록의 여유로 일상 비추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송내역에서 7분가량 걸으면 오래된 상가와 주택 너머로 새 아파트가 나타난다. 단지 바깥 울타리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경사진 길을 따라가자 대형 문주가 방문객을 맞는다. 지난 7일 입주를 시작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이다. 입주지원센터를 오가는 사람들과 분주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입주 초기의 활기가 느껴졌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들어섰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다. 단지명 ‘센트비엔’은 중심을 뜻하는 ‘센터(Center)’와 훌륭함을 의미하는 ‘비엔(Bien)’을 결합한 말이다.

단지는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 사이에 위치한다.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이용하면 부천 시내와 서울-인천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학교와 공원, 생활 상권도 갖췄다. 솔안초와 송내초, 부천서초 등이 인근에 있고 송내도서관과 솔안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원도심의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부천시는 ‘2026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송내역 솔안말어린이공원 일원 등을 선정했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는 방식이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의 조경 면적은 전체 대지의 34.42%다.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하고 건물 사이로 시야가 트이도록 설계했다. 지상에는 녹지와 보행로를 두고 휴게공간을 연결해 공원처럼 거닐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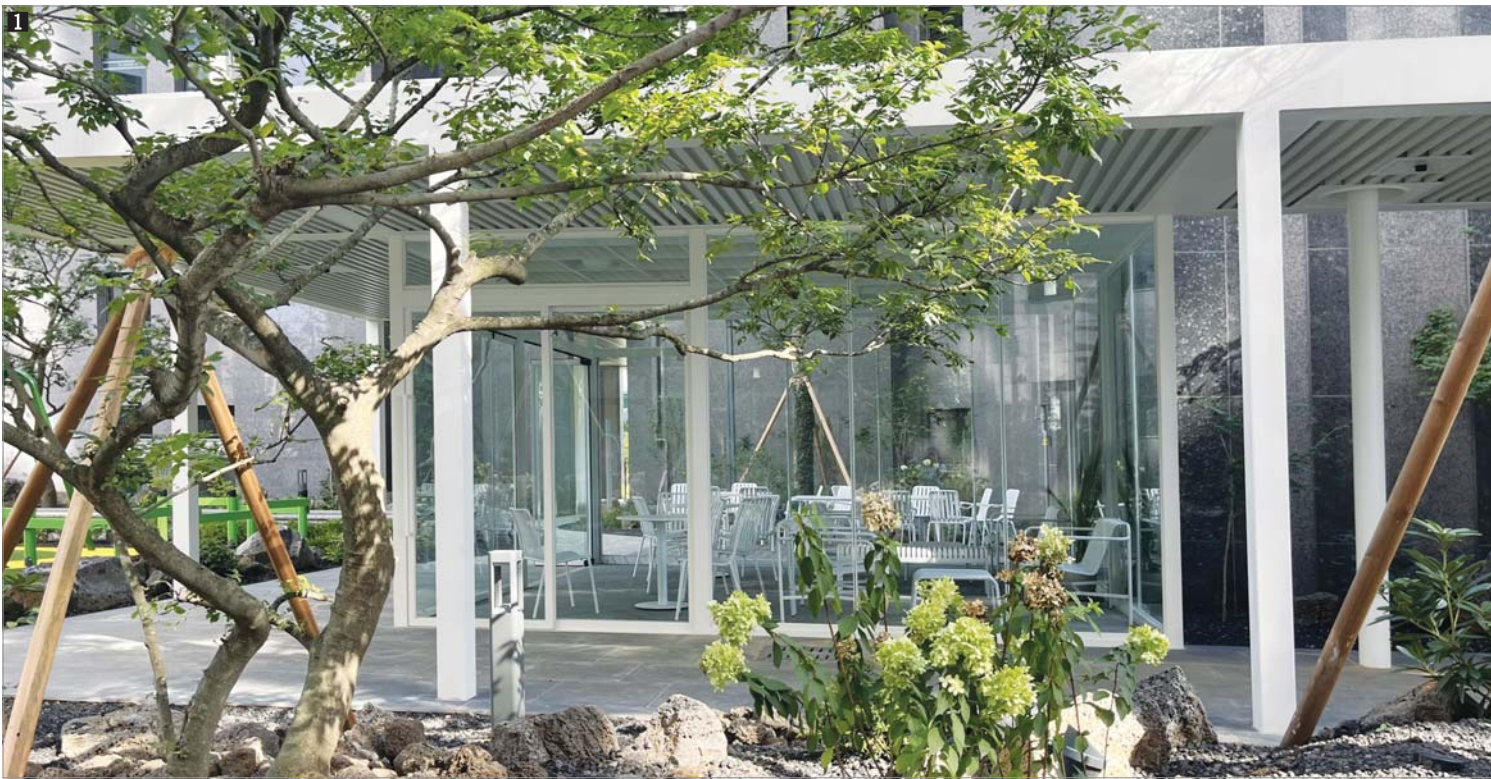
친환경 설계도 특화했다.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은 단지로, 2024년 상반기 환경주거문화대상에서는 웰빙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조경 공간의 넉넉한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1000가구 이상 단지라는 점을 감안해도 놀이터와 티하우스, 수경시설을 큼직하게 조성했다. 공원처럼 꾸민 공간도 여럿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와 꽃을 둘러보거나 쉬어갈 자리가 나타난다.

단지는 각각 6개 동으로 이뤄진 1·2단지로 나뉜다. 송내역에서 가까운 쪽에 101~106동의 1단지 뒤로 201~206동의 2단지가 이어진다. 두 단지 사이에는 중앙 어린이공원이 있다.

문주를 지나면 양쪽에 마련된 정원이 먼저 보인다. 오른쪽 난간 너머로는 높이 솟은 소나무와 키 작은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다. 나무 사이로 벤치와 넓고 평평한 돌이 보인다. 주변에는 작은 돌과 풀을 배치해 아기자기하게 꾸몄다.

단지를 방문한 이날은 9월의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눈부신 별



1 소나무와 작은 식물들로 둘러싸인 단지 내 티하우스. 2 잔디와 낮은 수목, 조경석이 어우러진 정원. 3 햇빛이 가득 내리쬐는 쉼터. 4 송내동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쉼터.

/성채리 기자

부천 송내·중동역 역세권 1045가구 단지
조경면적 34%… 채광·공간 개방감 높여
녹색건축·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설계’

녹지·보행로 배치… 쉬어갈 휴게공간 연결
송내동 지명에 걸맞는 소나무 배치 돋보여
햇살 받으며 자연 감상하는 통창 티하우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늦여름과 초가을이 함께 느껴졌다. 잔디와 나뭇잎, 곳곳에 핀 꽃들도 빛을 받아 선명했다. 조명을 켜 놓은 듯 환한 녹지가 단지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나무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림자다. 햇살을 받은 가지와 잎의 윤곽이 회색 벽과 바닥에 또렷하게 드리웠다. 나무 옆으로 그림자까지 펼쳐지니 녹지가 한층 풍성해 보였다. 휴게공간에는 나무와 지붕이 그늘을 만들었다. 밝은 햇살을 즐기며 걷다도 잠시 별을 피해 앉아갈 수 있는 자리다.

송내라는 지명은 소나무에 둘러싸인 안동네라는 뜻의 ‘솔안말’에서 유래한다. 이를 증명하듯 단지 곳곳에서 소나무가 눈에 띈다. 나무 줄기와 가지 사이로 쉼터가 보일 듯 말 듯 이어진다. 살짝 가려진 안쪽 풍경이 궁금해져 걸음을 옮기게 된다.

모양이 제각각인 돌을 이어 간 산책로를 따라가면 파란색 대형 물놀이터가 나타난다. 바닥의 파란색이 워낙 선명해 이미 물을 채워놓은 듯하다. 건물 사이로 열린 새파란 하늘과 이어지며 단지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놀이터 옆에는 통유리로 둘러싼 티하우스가 있다. 실내부터 바깥 테라스까지 흰색 테이블과 의자로 통일했다. 색과 장식을 덜어낸 깔끔한 분위기를 낸다. 파란 놀이터와 나란히 놓인 쉼터는 리조트의 수영장 옆 휴게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부모들이 실내에 앉아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구조다.

1단지에서는 천장을 높게 낸 동 출입구도 눈에 띈다. 출입구 안쪽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넓직한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앉으면 열린 입구 너머로 나무와 돌길이 보인다. 집을 드나드는 길도 여유가 있어 답답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동 주변에는 돌로 꾸민 정원이 많다. 검은 자갈 위에 크고 작은 조경석을 놓고, 그 사이에 나무와 꽃을 심었다. 밝은 회색 판석을 띄엄띄엄 간 공간도 있다. 짙은 바닥 위로 돌의 모양과 풀빛이 한층 또렷하게 드러난다.

2단지는 2층 높이로 올라가면 주거동과 조경공간이 펼쳐진다. 가장자리 쉼터에서는 유리 난간 너머로 주변 동네가 내려다보인다. 소나무와 키 작은 수목 사이로 파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쉴 수 있다.

1단지 끝자락에서는 커다란 소나무가 시선을 붙잡는다. 굵은 줄기가 한쪽으로 굽어 자라고, 그 위로 가지가 넓게 펼쳐졌다. 아래에는 낮은 수목과 조경석을 두고 벤치도 놓았다.

송내동 길가 벽면에는 ‘교통 좋고 복숭아향 그윽한 살기 좋은 송내1동’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과거 복숭아 과수원이 들어섰던 흔적이 동네를 소개하는 글귀에 남아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마을이라는 옛 이름부터 복숭아향을 내세운 문구까지, 송내의 이야기는 자연과 특히 가깝다. 단지를 나서는 길에도 햇살 아래 선명했던 나무와 풀빛이 잔상으로 남는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뉴욕전 선발…LAFC 6경기 무승 탈출
정조준
▲이강인 AT마드리드 데뷔골…라리가 ‘8월의 골’ 선정
/사진 뉴시스

▲‘日 야구 레전드’ 장훈, 9일 도쿄서 별세…향년 86세
▲방탄소년단 ‘스윘’, 美 빌보드 여름 결산 ‘글로벌’ 2위

▲“지난 1년 간 공연 암표 신고 1위는 방탄소년단 ‘아리랑’”
▲문학으로 전국 물든다…‘대한민국 문학축제’ 11일 개막